

수용자 종합문예지

통권 457호 | 2022 봄 호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직원 시 | 테마원고 | 수필 | 기획기사 | 용서의 글 | 시 | 독후감 | 수기 | 서간문 | 감상문

2022 | 분
동 권 457 호

세 기 간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2022년 봄호 (통권 457호)

1948년 4월 1일 창간 2022년 3월 17일 인쇄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 111-1270000-000299-08
편집인 : 한태환 인쇄 : 서울남부교도소
디자인실 : 한양애드 (02)2279-0814
우편번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회복귀과 : (02)2110-3438
e-mail : saegil@hanmail.net

CONTENTS | 목차

직원 시

- 04 봄비, 그리고 너 | 천안교도소 교도 조봉준
- 05 봄비 내리는 초저녁 | 군산교도소 교감 고석규
- 06 봄비(春雨) | 군산교도소 교위 김남진

테마원고 - 봄비

- 07 봄비가 오지 않길 바랐어 | 전유중
- 08 봄 여우비 | 백의성
- 09 봄비, 당신 오는 날 | 김근만
- 10 봄비 | 전영민
- 11 봄비와 아들 | 최성우
- 12 이 비가 봄비일까 | 허성진
- 13 봄비 | 한중윤
- 16 슬픈 봄비 | 서성덕
- 18 설렘에서 희망으로 내 안의 봄비 | 이재열
- 21 타임슬립 봄비 | 구재훈
- 23 시절의 봄비 | 이상진
- 27 소중한 봄비 | 송일랑
- 29 봄비를 기다리며 | 강중걸
- 31 봄비 | 송은송
- 33 나를 올려주는 봄비 | 김애경
- 36 봄비 | 정승환
- 39 봄비와 함께 | 최바울
- 42 사랑비 | 황인식

수필

- 44 슬픔 활용법 | 박길웅
- 47 길 위에 있는 깨달음 | 박준현
- 49 소통·공감 그리고 배려 | 송오현
- 51 모나미 | 조효선
- 53 성공 공식 | 문영식

기획기사

- 57 우리 땅 독도, 우리 음식 김치, 그리고 옷 한복 | 동덕여대 교수 김상철

용서의 글

- 65 용서를 구합니다 | 한승훈
- 67 역지사지(易地思之) | 신원철
- 70 용서를 구합니다 | 박근형
- 73 용서를 구합니다 | 강려화
- 76 용서를 구합니다 | 두정근
- 79 용서를 빌면서 | 정용호
- 81 용서를 구합니다 | 김경섭
- 83 용서를 구합니다 | 신재원
- 85 용서를 구합니다 | 윤영대
- 87 용서를 구합니다 | 유은석

시

- 89 럭키 슈퍼 | 송태운
- 90 집으로 가는 길 | 임유목
- 91 최백호의 노래 | 이호운
- 92 나무는 굽으면서 시(詩)를 쓴다 | 방영석
- 93 진우예식장 | 박정주
- 94 자격 | 조경화
- 96 물파스 향기 | 이상구
- 97 산 깊은 암자 처마 끝 | 조성철
- 98 잔소리 | 김영현
- 99 굴뚝이의 꿈 | 이호석

독후감

- 100 「스티븐 핑커의 빈 서판」을 읽고 | 양도영
- 104 「달려구트 꿈 백화점」을 읽고 | 신대섭
- 108 「파블로 네루다 자서전」을 읽고 | 황석조
- 112 「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을 읽고 | 박상언

수기

- 116 다시 시작합니다 | 이정환
- 118 어쩌다가 | 김정남
- 121 살아온 인생 | 배성열

서간문

- 123 사랑하는 나의 보물 1, 2호 | 전진희
- 125 어머니 | 최용대

감상문

- 127 2021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 이인태

봄비, 그리고 너

조봉준 | 천안교도소 교도

들에 내리는 봄비
만물에게 생명의 고동을
농부에게는 풍년의 기대를

나그네에게 내리는 봄비
고독한 여정을 잊고
잠시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연인에게 내리는 봄비
갈등이 일어나도 관대하게 대처하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기회를

내 마음에 내리는 봄비
흔들리는 갈대보다
묵묵히 오를 수 있는 계단처럼
언제나 마음 속 가득히 적셔주는 단비

봄비 내리는 초저녁

고석규 | 군산교도소 교감

봄비 내리는 초저녁
투명한 창가에 멍하니 혼자 앉아
젖은 거리를 바라보면

작은 우산을 받쳐 들고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는 여자
버스를 잡아타려고
좁은 어깨에 물기를 털어내는 중년
잡히지 않는 택시를 향해
주먹질을 날리는 젊은 회사원
경적을 크게 울리며 급정지하는 빨간 승용차

커다란 불빛을 켜고 신호대기 중인
대형화물차의 두꺼운 엔진소리에도
파묻히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연락하고
그냥 만나도
마주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당신은 항상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봄비(春雨)

네모난 창문사이로 소리없이 봄비가 내리네
오는지도 모르게 소리없이
봄의 전령사 봄비가 어김없이 찾아오네

겨울의 끝을 알리는 봄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모습
겸손한 모양으로

세찬 비바람이 아니기에 더욱 애잔하네
겨우네 얼었던 마음 차디찬 땅꺼풀이
이렇게 여린 봄비로 사르르

겨울의 끝은 또 다른 계절의 시작
오늘 봄비가 유난히 다가오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잔잔함으로

시작을 알리고, 응어리를 풀어 달라고
오늘도 봄비는 겸손함으로
나를 가르치네

김남진 | 군산교도소 교위

봄비가 오지 않길 바랐어

전유종

중학교 입학식
봄비가 차갑게 내린 날이었어

하룻길 깜박 잠드신 할머니
테리러 오지 못해

학교에 혼자 남아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기억들은 전부 하늘에 올려놓으셨는데
이 기억은 떠나는 날까지 붙들고 사셨어

봄비가 내릴 무렵에는 항상
학교 앞에 계셨거든
구멍 난 기억과 우산을 들고

내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를 보며 난 그저
더 이상 봄비가 내리지 않길 바랐어



작품평

대지의 생명들이 기다리는 봄비가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비 오는 날 손주의 하룻길을 돕지 못한 마음이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고 있는 할머니를 생각해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손자의 기억이 한 편의 동화 같습니다. 그 봄비 때문에 가족의 소중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봄 여우비

백의성

푸근한 봄별 등에 얹고
서리 열은 발뼀기들, 봄맞아 새판짜러
여우처럼 스리슬쩍 치고 빠진다, 그 봄비 아닌 여우비!

겨우내 오매불망 기다리던 봄비 마냥
갓 돌아난 새싹들에, 방울방울 교태를 흘뿌린 채
여우처럼 흘리듯 스며든다, 그겨울비 아닌 여우비!

아직 헛헛하고 시린 마음공터엔 솜털비 한방울 안떨균체
쇠창밖에서만 약올리듯 퐁퐁튀며 속 내리고
여우처럼 속 내뻘다, 그 새초롬한 봄 여우비!

꼬리 길면 잡힐라 봄별 틈새마다 살짝살짝 후둑후둑
얼음 가슴 설레이라고, 여우처럼 매만지다가
부리나케 치고간다, 아닌 봄에 봄 여우비!

작품평

여우비는 맑은 날에 잠깐 내리는 비입니다. 지역에 따라 여우비가 내리면 호랑이 장가간다는 말도 있지요. 내리는가 싶었는데 이내 그쳐 버린 비는 봄날같이 지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이 여우비에 비유되곤 하는가 봅니다. 그토록 기다린 봄인데 여우비까지 왔다가는 시를 보며, 순간순간 지나가고 있는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생각해봅니다.

봄비, 당신 오는 날

김근만

어디 젖은 머리 뿐이겠습니까
당신이 여기왔다
두고 가는 것에 비하면
제 젖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십니까
명주실 같은 저 봄비가
제 가슴에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에 오실 땐
눈(目)으로라도 꼬오옥 안아주세요



작품평

시는 다 말하지 않고 더 말하기입니다. 짧지만 긴 여운과 읽는 이의 상상력을 건드려주는 시입니다. 비가 오는 이유, 내겐 머리 젖는 일뿐이지만 모든 생명의 젖줄이란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사람의 마음도 일부분 비의 속성을 지녔을 것입니다. 마음을 주고받는다든 것, 마음에 젖는다든 것, 서로를 포용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봄비

전영민

알싸한 개나리향 봄비가 그리운 날이 있다.

오래되어 반질반질한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씻가루 뒤섞인 빗물이 집 앞 고랑 따라 내려가는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까무룩 가라앉아 편안해진다.

비가오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손님은 없어지게 마련이라
아버지는 진즉부터 슈퍼아저씨네 계실 거였다.

안쪽 방에서 탕탕 도마소리 들리고 구수한 찌개냄새 흘러나오는데도
아버지는 도통이나 들어오실 기미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아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니라 하신다.
별수 없이 우산 받쳐 들고 슈퍼로 가서 소주잔 기울이시는 분께
식사하시러 오시래요 하니 껄껄 웃으시며 알겠다고 하셨다.

한 우산 세우고 돌아오는 길 주름진 사발 꽃보다 활짝 웃으시며
우리아들 다켰네 우리아들 다켰네만 연신 중얼거리신다.

누런 이빨 잇새로 따뜻한 술 냄새가 풍기면
어쩌면 나는 봄비 색깔은 노란색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작품평

봄날 술에 취한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어린 시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시는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란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런 아들이 다 컸다고 대견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훈훈하게 읽히는 시입니다. 그 아버지의 노란 잇속처럼 봄비 색깔이 노란색이 아닐까 하는 시인의 상상이 재미있습니다.

봄비와 아들



최성우

아들과 함께 걷던길
봄비가 옵니다
언제까지 오려나 걱정도 됩니다
우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은 왜일인지 우산을 거부합니다

여기저기 고인물에 텀벙텀벙
새로산 꼬까옷 비에 흠뻑 흠탕물 범벅
그저 좋다고 웃으며 노래하며 뛰어댕깁니다

그런데 오가는 사람들 시선이 따갑습니다
졸지에 세살배기 방임하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들덕에 귀한걸 깨달았습니다
빗속에서도 뛰어놀며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어요

어린씩 깨우듯 저를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내기 하는 농부의 미소처럼
제게 큰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촉촉이 젖은 꽃잎처럼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우리네 발을 더 푸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필요할때 작은 물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삶이 윤택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질게 파인 바퀴자국 고인 물에서도
당신의 흔적을 느낄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이 아닌 세상 모두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작품평

빗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자꾸만 마음을 적십니다. 새로 산 옷보다 흠탕물을 즐기는 어린 시절이 그리웁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희를 그렇게 키우셨겠지요.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마음이 봄비처럼 가만히 가슴에 내립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해주는 시입니다.

이 비가 봄비일까

허성진

평대 속 작은 나무로 시작하여
서서히 풀과 생명 그 주변에다 피어내며
모진 비와 바람도 굳건히 버티면서
드디어 만개하는 결실 맺고 꽃이 피네
향기 맡은 나비하나 품으로 안아 본다.

생기 넘쳐 별처럼 땀 흘려 가던 날
원치 않은 잡초 피고 뿌리까지 썩어간다.

풍요롭고 약속 많던 평대에 나무 하나
한 순간에 가지마다 붉은 잎들이
모조리 떨어지고 생기마저 잃어가네
캄캄한 하늘에서 한 두 방울 떨어지는
이 비가 봄비일까
내 마음을 알 수 없네.

작품평

모든 것은 다 자신만의 때가 있습니다. 봄비는 봄을 기다리는 만물에게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새롭게 움터야 할 모든 생명들이 꽃을 피워야만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 잎을 떨궈내는 가을 같은 봄날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봄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신만의 노력이 필요하겠단 생각이 듭니다.

※ “테마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봄비

한종윤

그 날도 그렇게 봄비가 내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이 오다가 비로 변했으니 진눈깨비였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기다리던 엄마가 골목길을 돌아 검정색 우산을 쓰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던 날에 저에게는 반가운 비로 느껴졌고 때는 2월 달이었으니 아마도 봄비였을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입니다. 남한에서 제일 춥다는 고장입니다. 물론 대관령이나 설악산이 온도는 더 낮을지 모르나 그 곳은 고도가 워낙 높은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아니기에 보통 일기예보에 가장 추운 곳처럼 이야기하는 고장입니다.

그 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마친 저는 이듬해 3월 이곳 경기도 ○○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온 농촌에 불어오던 도시로의 이동이라는 물결에 저희 온 가족도 정든 고향을 뒤로 하고 온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누나는 먼저 ○○으로 올라갔고 저와 제 남동생은 2월말 봄방학 전까지는 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그 근방의 가까운 친척집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난생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주신 1,000원 짜리 지폐를 꼬깃꼬깃 속주머니에 숨겨 놓은 채 엄마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저희 형제를 데리러 오기로 한 토요일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봄방학이고,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어린 눈에도 날씨가 스산한 것이 무언가 떨어질 듯 했습니다. 친척집에 도착해 대청마루에 담요를 깔고 앉아 할 일없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벼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길어졌다 잦아졌다 반복하더니 어느새 비로 바뀌었습니다.

처마 끝으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던 그 시간 드디어 기다리던 엄마가 대문 앞 마당으로 들어오셨고 그 환한 웃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비 오는 것도 잊은 채 서로 뒤질세라 마당으로 뛰어나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 나이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며칠 동안 보지 못한 엄마였을 것입니다.

제가 봄비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봄을 재촉하는 비여서가 아니라 봄비 소리를 들으면 그 옛날의 그리운 엄마 품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봄비는 저에게 따뜻한 엄마의 체취, 기다림의 열매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그 후로 약 10여년 후에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갑작스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가 90년도 초반 가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날도 비가 온 듯합니다. 그러나 그 비는 그 옛날의 따뜻했던 그리운 봄비가 아니고 차가운 가을비였습니다.

제 땃속에 흐르는 따뜻한 어머니의 온기 탓인지 봄비 오는 소리는 저에게 다른 어떤 부드러운 소리보다 더 애뜻하게 다가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내리는 봄비는 무척이나 기다려 지는 비 일 것 같습니다.

조금은 무겁고 어두운 느낌의 여름비나 날이 곧 추워질 것을 예고하는 쓸쓸한 가을비나 빙판을 걱정해야 하는 겨울비와 달리 봄비가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는 무척이나 따뜻하고 밝은 이미지입니다.

개천가의 버들강아지가 그 물기를 머금고 싹을 틔울 듯 하고, 잠시 후에 필 노란 개나리꽃의 전령 같기도 하고, 산골짜기 깊은 곳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합니다. 볼 것이 많아서 봄이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햇살 따뜻한 가운데 온 세상을 울긋불긋 수놓는 수많은 꽃들의

향연, 그 봄을 피우기 위해 봄비는 서둘러 우리 곁에 와서 그 잔치를 준비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비는 희망이고, 추운 겨울을 이겨낸 인내의 꽃이며 우리의 웃음과 소망을 자아내는 자양분 일 것입니다.

수감생활은 어찌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짧게는 식사를 기다리고 운동시간을 기다리고 조금 길게는 그리운 서신이나 반가운 접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출소할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기다리는 시간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번민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어떤 이렇다 할 목표 없이 무작정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고단한 일이고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쪼개야 합니다. 스스로 어떤 반가운 기다림의 대상을 중간 중간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2년, 3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고통이지만 한 달, 두 달은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오던 2022년도 새해도 왔습니다. 그리고 곧 설날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리다 보면 다소 힘들고 어두운 세월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창문 밖 울타리의 노란 개나리꽃이 다시 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온 대지를 따뜻이 녹여 줄 봄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40여 년 전 그날 오후에 내리던 그 봄비와 함께 오셨던 어머니처럼 봄은 이미 저의 가슴속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작품평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으로 먼저 이사 간 엄마와 한 주일 헤어져 있었다고요. 엄마가 아들을 데리러 왔을 때,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보고 싶은 엄마의 품이 연상된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이 수필에는 이외에도 볼 것이 많아서 봄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 말, 수감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 등 잊히지 않는 구절이 많습니다. 식사도 운동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바깥세상에서 봄비 맞을 날이 올 것입니다.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는 날도 비가 오지 않을까요.



슬픈 봄비

서성덕

봄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가는 초봄 때쯤이면 저는 2015년 서울○○병원에서 보냈던 저의 25살 시절이 생각납니다.

2015년 초 어머니는 뇌종양 재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결심하신 어머니께서는 ○○에서 ○○까지 오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계시는 동안, ○○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동생은 주중에 상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서 회계사 공부를 했던 제가 주중에 상주를 하고 주말마다 아버지와 여동생이 상주하면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보호자들은 따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하루 종일 병원을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하루는 본관 1층에서 책을 보고 다른 하루는 별관에서 사람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담당교수님이 언제 호출하실지 몰라서 병원을 떠날 수 없었고 혼수상태 이셨던 어머니가 깨어나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2015년 따뜻했던 봄을 혼자서만 춥고 구슬프게 보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것과 깨어나시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는 것보다 슬펐던 것은 담당교수님께서 어머니가 못 깨어나실 거라고 하신 말을 아버지께 전하는 것 이었습니다.

항상 희망을 놓지 않으시던 아버지에게 희망의 끈을 그만 놓아야 한다는 말을 해야 하는 그 당시 상황이 25살이었던 저에게는 너무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결국, 2015년 7월 어머니를 제 가슴속 깊이 묻었습니다.

2015년 봄에는 비가 안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흘린 저의 눈물이 비대신 많이 흘러서 그런가봅니다.

늘 이맘때쯤이면 어머니의 품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항상 잠들기 전에 코를 맞대어주시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던 기억이 마음속 버팀목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이 날 때마다 아버지와 여동생이 볼까 꼭 참고 삭혔던 슬픔이 여기 안에서 자꾸 떠오르네요. 아마 이번 봄에도 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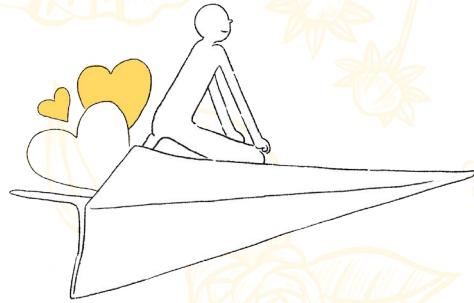
그리고 “엄마 잘 지내? 나는 잘 있어. 엄마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가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거라는 걸 알았으면 사랑한다고, 엄마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다음에는 더 시간 많이 보내자고,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아빠랑 혜진이도 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이번 연도에는 제 예상과 달리 봄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봄비가 내린 뒤 더 단단하고 씩씩하게 세상을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품평

성덕 님께서 스물다섯 살 때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으니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잠들기 전에 코를 맞대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신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살았더라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해 봄에도 비가 분명히 몇 번 왔을 텐데 비가 오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를 여윈 슬픔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같은 봄비가 오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설렘에서 희망으로 내 안의 봄비



이재열

매화가 지는 봄비가 내리고 민들레가 돌아 봄을 알려주었다.

이내 곧 길거리를 분홍빛으로 적시는 벚꽃이 만개하는 따스한 봄날이 내가 추억하는 봄이다. 2호선 신답역에서 용답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청계천 변에 1.25km 정도의 매화거리에 난생 처음 매화향기를 맡고 신기해 매일 걸었던 것도 잠시, 곧 피우게 될 벚꽃이 반복되는 비 예보에 피기도 전에 떨어질까 걱정했던 스무 살의 봄비에 대한 기억.

인구 8만이 겨우 넘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춘기가 시작될 때 인구 30만이 조금 넘는 소도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내겐 TV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서울의 봄은 '설렘' 그 자체였다.

19살 11월에 상경한 서울, 곧 성인이 될 나는 서울에 왔다는 기대를 몸에서 떨쳐 낼 수 없었다. 20살이 되고 젊음의 거리라는 홍대도 찾아가보고, 얼마 뒤 여자 친구도 생겼다. 그렇게 봄이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뜻하는 계절이라면 나의 스무 살에도 봄이 찾아왔다. 허나,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그 곳은 아마 사막이 될 것이다. 비도 오고 눈이 와야 땅에 새싹이 돋고 나무에 열매를 맺듯, 나의 스무 살의 봄에도 비가 찾아왔다. 스무 살 성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자유라는 것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찾아온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지라고 찾아온 통지서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스무 살의 서툰을 동일하게 갖고 나 또한 서툰했고 5월의 어느 날, 봄의 끝자락에서 나는 이별을 했다. 햇살이 가득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나의 봄에 비는 내렸고 나는 어느새 봄비를 싫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비가 내려야 한다고 한다. 예로부터 농경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고, 극도로
분업화 된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민들이 힘들어 한다고 뉴스에서 매년
보도 해준다.

벼농사를 위해 물을 채워놓은 논은 가뭄에 취약하다.
물이 부족하면 잘 컸을 벼가 말라죽기 시작하고, 가뭄이 찾아온다.

가뭄은 농민들에게 대재앙으로 찾아온다. 쌀이 주식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빵을 먹으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이 심심해 꼭 쌀을 먹어야 '밥다운 밥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나인데도 이성적으로 비를 싫어하게 되었다. 분명 나는 라디오를 들으며 잠에 들었고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던 '타블로의 꿈꾸는 라디오'에서 비오는 저녁이면 '에픽하이
- 우산(feat. 윤하)'를 틀어주던 그때를 좋아했었다.

새로운 시작과 만남·성장에는 반드시 아픔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던 가을 날
2014년 10월 27일 마왕이라고 불리던 '신해철'이 장협착 수술을 받고 불과 열흘 뒤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의 죽음은 의료사고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고 나는 이 당시 '신해철'이라는 존재를 내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듬해 MBC의 프로 <복면가왕>에 출연한 '우리 동네 음악대장'의 하연우가 Lazenca를 불러
화제가 되었을 때. 이 노래가 신해철이 있던 밴드 '넥스트'가 해체하기 전 1997년 네 번째
정규앨범<Lazenca Ca Space Rock Opera>라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나는 조금 더
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가 27살이었던 1994년 넥스트의 두 번째 정규앨범 <The
Being>이 명반이라는 평가와 함께 27살이 되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얼른 27살이
되고 싶었다. 이런 내 생각을 뒷받침 해주 듯 '지미 헨드릭스'는 기타연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약물중독으로 사망했지만 그 평가를 받은 나이는 27살이었고, '너바다'의 키드 코베인 또한
27살에 얼터너티브 록으로 세상을 뒤집었고, 지금은 아델이 영국을 대표하는 여가수 중
한명이지만, 그녀 이전에는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있었다. 이들 모두 27살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나는 27살의 내 모습은 어떨까? 27살의 나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감에 나는
싫어했던 봄비를 기다리게 되었다.

시간은 지나 2014년에서 2018년, 24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나는 봄비를 온 몸으로
맞으며 시즌을 시작했다. 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돈을 벌고 성장을 하면 27살의 나는 제법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거라는 기대감으로 그 넓은 잔디밭 위에서 속옷까지 다 젖도록 비를 맞으며 일을 하고 또 했다. 비를 싫어하게 되었지만, '봄비' 만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기에 27살이 되기 위해서는 그 봄비를 몇 차례 더 겪어야 하니깐, 나도 모르게 봄비는 나에게 미래를 기대하는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다.

고시원에서 스무 살을 보냈던 나는 '형편이 괜찮아 질거다' 라는 생각으로 버텼고, 24살에는 골프장에서 일을 하며 16평 규모의 투룸에서 지내며 27살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대감과 함께 25살에는 드디어 고시원을 거쳐 원룸·투룸 월세를 지나 전셋집에 들어서게 되었다. 5년동안 조금씩, 꾸준히 넓어지는 나의 공간에 27살에는 나의집을 갖겠다는 목표를 마왕, 신해철과는 다르지만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과는 다르지만 내 안의 세계에서 나는 '무엇을,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생각이 확고히 섰다. 그러나 나의 목표와 기대·설렘은 27살을 앞둔 26살, 2020년 11월 13일에 산산이 무너졌고 나의 27살의 봄은 새 생명에 꼭 필요한 봄비 내리는 날을 나는 스스로의 대한 자책으로 보내야만 했었다. 재판을 기다리며 운동시간에 바라보았던 새파란 하늘은 빨려들 것처럼 높았지만 내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허나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내게 과거의 일 때문에 절망하여 주저앉을 수 없었다. 내가 그린 모습을 이루지 못해 스스로에게 실망했지만 나는 코스모스라고 생각을 바꾸며 위로 했다. 아직 봄 이니까, 내 인생은 아직 봄이기에 나는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울 것이다. 가을이 되려면 봄이 지나가야하기에 이 시기 또한 지날 것이라 희망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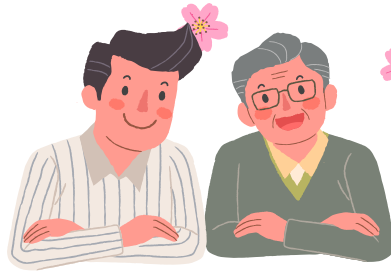
기다리던 27살의 봄비를 맞지는 못했지만 28살·29살을 지나 서른이 되면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나오듯 뜻을 세우는 이립 '而立'의 나이에는 나에게서는 그때의 봄비를 맞으며 내안의 꽃을 피울 것이다.

이제 내게 봄비는 설렘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겐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나는 끝내 봄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성장 할 것이다.

작품평

스물네 살 때부터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스물일곱에는 내 집을 갖겠다는 결심이 너무 과한 것이었을까요? 대체로 욕심이 과하면 영어의 몸이 됩니다. 음악에 대해 조예가 깊는데 아픈 시간 잘 견뎌 듣고 싶은 음악 실컷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로 시작하는 노래 아시죠? "아무것도 걱정 안 돼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행복이 나를 맞이할 때까지."로 끝나는 그 노래.

타임슬립 봄비



구재훈

시간을 돌릴 수는 없을지라도 사람은 예기치 않은 일로 예전의 기억을 강제로 환 시키기도 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그 시절의 나로 데려가주듯이, 우연히 본 TV 광고 속 음식을 보며 옛 연인과 함께 먹던 추억이 떠오르듯이, 해마다 돌아오는 봄날의 빗줄기는 어리석었던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가 느슨해진 내 마음을 다잡게 만든다.

“마누라 복 없는 놈이 자식복도 없네. 인자는 마 살 이유가 없는기라.” 13년전 1심 재판이 끝난 후 접견장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늦은 봄, 이 비가 그치면 코앞에 여름이 와 있을터였다. 그렇게 내 인생의 봄날도 이젠 끝나가는 느낌이였다.

처음 구속된 후 선고일까지 나는 매일 극단적인 생각만 했었다. 큰 죄를 지었으니 그 댓가 또한 분명히 클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나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채, 내가 받을 고통에만 온갖 의미부여를 하기 바빴다.

20년... 막상 선고를 받고 나니 현실 감각이 없어졌다. 멍한 상태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추적추적... 봄비는 구슬프게도 내렸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기라.’

접견실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새벽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는 불현듯 아버지가 너무 가엽게 느껴졌다. 하나뿐인 자식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내 처지에만 맞춰져 있던 포커스가 견혀지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향한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많은 빚을 지시고 집을 나가신 후 홀로 나를 키우신 아버지였다. 남겨진 어머니의 빚을 갚으며 한동안 힘들게 살았지만 아버지께서 오로지 나를 보며 그 시간을 견뎌내셨다.

나는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께서 살아갈 이유를 잃으신 날, 나는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이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늦은 봄비가 내릴 때면 그때의 다짐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때와 달라진 것은 찢값을 임하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태도이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바뀌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부여된 반성의 시간에 오롯이 책임을 다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와 접견을 할 때면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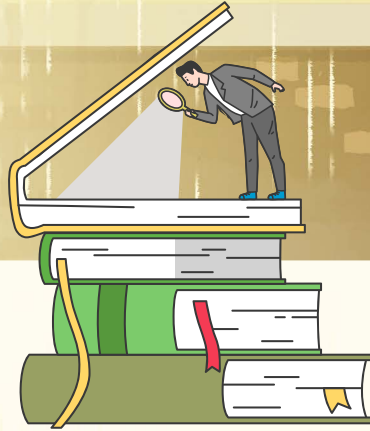
“아들내미가 죽을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내 나이도 어느덧 마흔을 훌쩍 넘겨버렸으니 인생에 있어서도 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절이 뭐가 그리 대수랴?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아닐까? 내게 남은 계절들,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남은 수용생활을 열심히 살아보고자 한다.

작품평

저 또한 아버님의 건강을 빕니다. 20년 형을 받고 13년을 사셨다면 앞으로 남은 7년, 길다면 길지만 13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빚을 잔뜩 지고 집을 나가셨다고요. “인자는 마 살아갈 이유가 없는기라”고 말씀하신 아버님은 이제는 그대가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부자가 봄비 내리는 날 꽃구경하러 갈 날이 반드시 오리라 생각하며 나날을 열심히 살면 함께할 여행할 날이 올 겁니다.

시절의 봄비



이상진

2009년 이른 봄, 20대 중반의 나는 뉴욕 주립대 교환학생으로 유학중이었다. 학창시절 공부를 곧잘 하였다.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 후 존경하는 담당 교수님의 추천으로 운 좋게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가게 된 너무나 갈망했던 유학이었다.

유학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중앙도서관에서 보냈다. 중앙도서관 안 수많은 고서의 종이냄새,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그 촉감, 종이 위를 지나는 펜촉소리, 책 위로 쏟아지는 황금빛 봄의 햇살이 좋았다.

그 시절 나는 수학과 철학에 심취해 있었다.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추구했던 위대한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과 에드문트 후설이 좋았고, 숫자로 세상의 현상을 증명하고 해석한 세기의 수학 천재 오일러와 라이프니츠가 좋았다.

철학책의 마지막장을 넘기는 순간마다 내안의 넓은 세계는 분열되어 재조정되었고, 석양이 질 때 석양의 각도에 따라 생기는 그림자의 자취를 계산할 수 있는 미적분에 감탄하였다.

대학 캠퍼스 안 어느 곳에서든, 안광이 지배를 철하듯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훌륭한 학우들과 하루의 모든 시간을 계획하여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집요하게 공부했던 시절이었다. 궁극의 지성에 대하여 끊임없는 갈증을 느꼈고, 나는 그 갈증을 사랑했다.

빛나던 그 시절의 어느 봄날, 나는 중앙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레이먼드 카버의 책을 읽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렸다. 봄비였다. 뉴욕 북부 오스위고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겨울동안 얼었던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비였다.

창문으로 느껴지는 봄비의 진동, 손으로 더듬어 느끼는 그 울림과 소리가 좋았다. 비가 그친 후 맺힌 빗방울을 봄의 햇살이 비추었다. 빛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했던가. 맺힌 빗방울을 황금빛의 따스한 입자가 둥글게 감쌌다. 그렇게 겨울은 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오고 있었다. 짧은 나의 인생도 봄이었고, 모든 것이 싱그러웠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창업을 하였다. 지난날 치열하게 공부했던 지식과 자부심은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주었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 최선을 다했다. 좋은 학연, 그리고 소중한 이들의 도움과 운이 따라 주어 사업이 승승장구 할 수 있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그렇게 내 삶의 여름이 왔고, 가을이 도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된 성공 속에 나는 욕심이 이성을 앞서게 되었고, 사업 중 발생한 법적 공방 끝에 구속되었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사소한 내 주위의 사람들과 소중한 가족, 자신의 신념이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해주었지만 그 의미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나는 수의를 입고 있었다. 구속은 긴 겨울과 같았다.

내안의 모든 것을 희끗하게 얼려 버리고, 손등을 짚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지독한 추위의 겨울이었다. 3년을 재판에 임하며 보냈다. 오랜 시간 진행되는 재판 속에서 고도의 사법적 질책과 심한 자괴감은 나를 끝없는 심연으로 침전하게 만들었다. 지난 시간은 때로는 고통 속에서 몸을 태우다 스러지는 순간순간의 잔해였고, 그 상흔을 가족들의 사랑이 어루만짐으로써 한줄기 희망이 공존하는 것이었다.



그 후 기결수가 되어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는 수의를 입고 창밖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창에 부딪히는 봄비의 진동을 느꼈다. 창에 비친 내 얼굴빛은 파리했으나 폭풍 같은 시간을 견뎌낸 내 눈동자는 깊어져 있었고, 내면은 더욱 고요해져 있었다. 나의 눈동자가 깊어진 까닭은 구속된 이후 찾아온 고통속 세계의 해일이 내안의 세계의 해안을 잠식하려 할 때, 그것을 견뎌내고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내 세계는 고통속 세계가 뒤엎고 지나간 해일의 흔적들과 파편들이 그대로 남아 그것을 흡수하여 비로소 내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그렇기에 더욱 고요해졌으며, 더욱 아름다워졌다. 그리고 그 날 내리는 봄비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일어있던 모든 것을 감싸 안은 지난날 유학 시절 느꼈던 따스한 봄비의 감촉과 냄새였다.

‘함수 $f(x)$ 가 폐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f 의 원시함수 $F(x)$ 가 존재하면 $\int_a^b f(x)dx = F(b) - F(a)$ 가 성립한다.’

위대한 라이프니츠의 미적분 기본정리다.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진리는 직선으로만 해석되던 세상에 ‘곡선’이 주는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다양성을 부과하여 인류를 발전시켰다. 우리의 인생도 항상 직선과 같이 순탄할 수 없다. 지금의 이 시련은 직선인 내 인생에 있어 곡선과 같은 굴곡의 시간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나는 이 곡선의 시간을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의 말처럼 ‘판단중지’하려 한다.

현대 철학계의 꺼지지 않는 별인 에드문트 후설은 대학시절 너무 좋아했던 철학자였다. 그는 판단중지란 개념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였는데 ‘판단중지’란 세계에 대한 가정, 선입관, 인습적 가정을 배제하고 판단을 중지하여 바라보라는 후설이 처음 주장한 개념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앞으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바라 볼 수 있고 올바른 사고구조로 학문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구속되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과 경험들. 이것에 대한 모든 선입관. 부정적인 가정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여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법무부 수용자 종합문예지의 이름인 '새길'처럼 여기고 주변을 돌아보며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챙기며 신중하고 가치있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법무부 수용자 종합문예지 '새길'의 아름답고도 진정한 정의라 나는 굳게 믿는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 또한 무사히 그들만의 폭풍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비로소 눈동자가 더욱 깊어졌으리라 나는 확신한다. 나와 모든 이의 인생에 만물을 감싸 안는 따스한 봄비와 함께 매서웠던 겨울이 가고 봄이 다시 찾아옴을 예감한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니. 마침내 봄이 왔을 때 바람은 더욱 포근해질 것이고, 들꽃은 무성히 피어날 것이며, 봄비와 함께 아름다운 긴 무지개가 드리울 것이다. 그리고 고통과 시련의 겨울 속에서 흩뿌려진 모든 지혜는 내안에서 보석처럼 빛나서 언젠가 나와 서로 만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영작한 문장으로 이글을 마치려 한다.

“Those painful moments will be lost in time like tears in spring rain.”

“이 고통스런 순간들은 모두 시간 속에 사라질 것이다. 봄비속의 눈물처럼”

작품평

봄비 내리던 날, 수의를 입고 창밖을 보며 인생의 어떤 철학을 깨달았나 봅니다. 아마도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더라면 끝내 찾아오지 않았을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공부도 많이 한 엘리트이지만 문장력이 탁월하니 앞으로 글을 쓰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글은 희한하게도 자기반성과 수양을 유도합니다. 일기를 썼더라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을 분인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중한 봄비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땐 봄비가 내려도 소중한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봄비가 내리면, 제 두 눈망울에도 봄비처럼 소리없이 촉촉이 눈물이 고여 흘러내립니다. 이곳에 온지도 6년째 접어들지만 여전히 담장 밖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봄비가 내리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작은 창문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 보면 쇠창살 너머로 보슬보슬 봄비가 슬프게 다가 오는건 아마도 엄마와의 추억이 생각나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 매일 새벽 4시반쯤에 엄마랑 가까운 산에 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운동 마치고, 엄마랑 팔짱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렸는데 엄마는 그날 저에게 제 긴머리가 젖을까봐 엄마가 입고 있던 잠바를 머리에 덮으라고 벗어주셨지만 저는 “됐어, 젖으면 젖는거지. 어차피 집에 가서 목욕할거야.”라고 웃으면 계속 엄마는 저에게 “어이구~ 머리 젖으면 머리에 이 생긴다.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이 청개구리야!~~”라고 웃으면서 제 머리에 억지로 덮어 주시면 저는 엄마에게 “아이고. 비 맞는다고. 머리에 요즘 누가 이가 생기노? 거짓말 좀 치지마 엄마.”하고 웃으면 엄마도 막 웃으면서 “아무튼 쇠내 나니까 덮어” 하며 웃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딸 많은 딸 부잣집 넷째딸이었지만 엄마에겐 가장 의지가 되는 딸이라고, 엄마는 늘 이웃사람들에게 항상 자랑스러운 그런 넷째딸이었습니다. 지금은 까마득한 옛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이곳에서 봄비가 내리면 쇠창살 사이로만 볼 수 있는 봄비를 바라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가장 많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슬픔반, 기쁨반으로 봄비를 맞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슬프고 40대는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데 가장 소중한 40대를





이곳에서 보내는 것이고 이젠 5년이 지나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지켜본 봄비를 이제는 곧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힘든 축생과 같이 살아온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짓고, 사회로 힘차게 나가는게 저의 작은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전 이곳에서 많은걸 깨달았고, 봄비는 농부들에겐 소중한 반가운 단비가 아닐수 없듯이 저도 엄마에게 소중했던 사랑받던 봄비같은 딸이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니, 부모님께선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많이도 아파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곧 저도 제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봄비를 바깥 세상에서 맞이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힘겨웠던 시간이였지만 시간이 멈춘 듯해도 깊이 반성하며 지내다보니, 쉽 없이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은 설레이고 기쁩니다.

힘든 수용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수용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멈춰있는 것 같아도 금방 흘러가고,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은 애태우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봄비처럼 소리없이 내려와 천천히 만끽해야 지나가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이곳에서도 소중히 가꾸고, 소중한 사람이 된다면 이곳도 봄비처럼 고마운 공간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가장 소중한 봄비 같은 딸이였듯이, 비록 이곳에 있지만 저는 항상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필요한 소중한 봄비 같은 사람이 되고자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겨 준 봄비를 맞으며 엄마랑 곁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인내하고…. 오늘도 내일도 남은 수용생활을 소중히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작품평

봄비는 소나기나 폭우 혹은 장맛비와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적시기 때문이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산에 운동을 다니던 딸이 어찌하여 어머니를 두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시련을 잘 견디면서 봄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듯이 시간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자연의 소중함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봄비를 기다리며



강종걸

비에에는 참 이름도 많다. 소낙비, 장맛비, 가을비, 겨울비, 여우비, 안개비, 보슬비, 조선의 왕이방원이 염원이 담긴 태종우..., 얼핏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니 모두 열거하면 얼마나 많을까? 비의 이름이 이렇게나 많은 것은 인간뿐 아니라 만물이 기대하는 생명의 원천이기에 그러하리라. 하지만 계절에 따라 내리는 비에는 심술궂다 못해 때론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장맛비가 있다. 또한, 뭔가 때에 맞지 않고 을씨년스런 겨울비. 우수를 자아내게 하는 가을비가 있고 봄비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희망차게 하고 환호하게 하는 비는 봄비다. 예부터 모든 생명체는 왜 그렇게나 봄비를 기다렸을까?

봄비는 이름 그대로 봄을 알리는 전령이었다. 원시인들이 동굴 속에서 지금보다는 몇십 배 더 혹독했던 겨우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그지 진저리치는 시련이 끝나고 나면 다시 따사로운 봄이 올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나 애타게 기다리던 봄을 맞아서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여주고 적셔주는 봄비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고 특히 원시인들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언어에서 계절을 노래하는 시와 노래에는 단연 봄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봄비가 왜 그렇게 은혜로운 것인지는 비의 원래 모습인 물에 대해서 알고 보면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의 스승 동중서는 춘추번로에서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 “물은 발원지에서 폴폴 튀어오르거나 팔팔 용솨음치다가 밤낮을 쉬지 않고 흘러가니 이것은 의기양양한 사람과 비슷하다. 웅덩이를 다 채우고서 앞으로

나아가니 이것은 공평성을 지키는 사람과 비슷하다. 낮은 곳을 따라 아래로 달려가며 조그마한 틈을 남겨두지. 이것은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과 비슷하다. 계곡을 따라 지나가면 길을 놓쳐 헤매지 않고 만리 길을 달려가서 중도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니 이것은 지혜있는 사람과 비슷하다. 독에 막혀서 시간이 지나면 맑고 깨끗하게 변하니 이것은 하늘의 명령을 아는 사람과 비슷하다. 천 길의 낭떠러지로 달려가더라도 나아가며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니 이것은 용감한 사람과 비슷하다. 만물은 하나같이 불을 만나면 힘들어하는데 물만이 불을 이길 수 있으니 이것은 의무가 당당한 사람과 비슷하다. 만물은 물을 얻으면 살지만 마시지 못하면 죽게되니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 비슷하다.”

공자가 냇가에 서서 흘러가는 물을 보고 말했다.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낮과 밤에 걸쳐 그치지 않네.” 바로 이런 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나 흠결 없이 성인의 덕을 온전히 다지니 물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뜻과 인간의 소망에 상응해서 봄에 내리는 비가 봄비다. 그러니 이런 봄비가 가져다주는 축복이 어찌 하나 둘이겠는가?

이제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제법 긴 시간이 흘렀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쓰디쓴 실패와 깊은 좌절을 겪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실패와 좌절은 찾아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다. 행여 누군가가 “나에게는 실패가 없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곧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실패를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그횃수를 줄인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서 나아가느냐의 문제이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는 살 수도 없고 이렇게는 죽을 수도 없을 때 나의 삼십 대는 찾아왔다”고 읊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대로 살지는 않는다. 올봄 풍족한 봄비가 내려 얼어붙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작품평

짧은 테마 수필이지만 깊이가 있는 글입니다. 독서량도 많은 듯하고 문장도 아주 정확합니다. 바깥세상에서 읽은 책인지 그 안에서 읽는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전의 지혜를 체감하고 계신 분이니 남은 날들을 책과 함께 소중하게 가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독자에 만족하지 말고 수필가로 나설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봄비



송은송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봄날...

긴 겨울의 잔재들을 걷어낸 후 새싹을 틔우느라 여념이 없었던 봄은 창조의 그 위대함을 뽐내며 세상의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염없이 봄비를 뿌려대고 있었다. 당시에 우리 집 마당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질퍽거릴 만큼 흙투성이였고 흑여 얇은 고무신에 흙이 들어갈까 봐 보릿짚을 깔아두고 있었다. 하지만 보릿짚을 두툼하게 깔아놓아도 마당에 빗물이 고이면 마당은 마치 작은 저수지처럼 물이 넘쳐흘러서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고 가끔은 물이 너무 불어서 인근 저수지에서 떠내려온 개구리, 물뱀들이 마당을 휘젓고 다녀서 어린 손녀인 나를 키우시는 외할머니를 늘 긴장하게 하였다.

그날, 그러니까 봄비가 내리던 그 날,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나는 수업을 마치기도 전에 어서 집으로 가보라는 담임선생님의 지시에 영문도 모른 채 보자기 책가방을 허리에 묶고 빗속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었다. 돌아와서 보니 봄비가 내려 물바다를 이룬 마당 뒤쪽으로 어여쁜 여인이 서 있었다. 외할머니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나의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3일 만에 일본으로 떠나셨던 그분이 돌아와 우리 집 문지방에 서 계셨다.

엄마를 만나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외할머니로부터 “네 어머 왔쎬(네 엄마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될 만큼 엄마의 출현은 현실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꿈속의 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역세지는 빗줄기를 피할 생각도 없이 멍하니 서서 엄마를 바라보기만 하던 그때 갑자기 엄마가 비명을 지르시며 휘청이더니 마당에서 그대로 쓰러지셨다. 물뱀이 허락도 없이 우리 마당에서 헤엄을 치다가 엄마의 구두에 밟히는

순간 엄마를 물어버린 것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은 초비상 사태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보름간 우리 집에서는 한약 달이는 냄새로 코가 막힐 지경이었다. 그렇게 나는 봄비가 내리던 그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를 만났고 봄비가 그친 또 어느 날 엄마는 내가 태어나던 그 시절처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셨다.

엄마가 나를 두고 다시 일본으로 떠나신 후 나는 비가 내리면 문지방을 밟고 서서 마당 끝 울레를 쳐다보며 엄마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버렸었다. 평소에는 멀쩡하게 있다가도 비만 내리면 그리움이 도져서 내리는 비보다 더 많이 나를 울게 했었다. 내가 그렇게 서글프게 울 때마다 나를 달래주던 외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엄마 언제 와?” 이렇게 물으면 외할머니는 늘 똑같은 표정과 말투로 대답해주었다. “니네 어명은 봄비가 내리면 온단다.”

하지만 엄마는 봄비가 내리던 그 이듬해에도 오지 않았고 그다음 해에도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또 다음 해를 기다리지 않는 건 아니었다. 봄비가 내릴 때마다 기다렸던 엄마를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거짓말처럼 봄비와 함께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리곤 엄마로서 역할을 아낌없이 실천하셨다. 지금은 저 먼 땅 살아서는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홀로 사시고 계실 테지만 난 어느 순간도 엄마를 잊어 본 적이 없다.

봄비를 떠올리면 생살이 찢어지는 통증이 어느 때부터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엄마가 떠나가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상, 이 증상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수없이 다녀봤지만 약을 먹으면 잠깐 멈출 뿐, 봄이 되면 통증은 고질병이 되어 나를 괴롭힌다. 그렇다고 내가 봄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엄마를 만났던 그 날의 그 환상처럼 봄비는 언제나 나의 그리움인 동시에 엄마를 기억하게 하는 최고의 명약이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잠깐 눈을 감았던 순간이 있었다. 아직은 멀리 있는 봄, 그 봄이 오려는지 지금 오고 있는 건지 자꾸 내 귓속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그날처럼...

그때의 그 날처럼 올해도 또 봄비는 내릴 것이다. 그리곤 엄마의 따스한 손길처럼 나를 집으로 데려다줄 것이다.

작품평

영화 한 편을 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송 님을 낳고 사흘 만에 일본으로 떠난 어머니는 일본인인지 재일교포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본 그날, 마침 비가 와서 뱀이 마당에 나타난 것일까요. 물뱀에 물려 쓰러진 어머니는 딸을 예뻐해 줄 시간도 못 갖고 다시 일본으로 가버렸군요. 5년 뒤에 다시 그날처럼 비가 오는 날 재회했으니 이은하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나 봐요. 하지만 봄비와 함께 은송 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실 겁니다.

나를 울려주는 봄비

김애경

2020년 11월에 특경이란 꼬리표를 달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놈의 돈·돈·돈 하는 바람에 지옥을 경험했고 영혼도 마비되었지요. 돈이 무엇인지,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돈과 행복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많이'만 외치곤 했습니다. 덮어놓고 돈에 집착하다가 돈을 얻는 게 아니라 되레 돈에 발목을 잡혀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은 적든 마음의 여유라곤 눈곱만치도 찾을 수 없이 늘 돈을 부여잡고 있었으니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데도 늘 돈에 굶주린 '거지 근성'이 나에게 있지 않았을까, 가지면 가질수록 되레 욕심만 늘어 여태 돈 갈증에 시달리지는 않았나 실패한 원인을 돌아봅니다.

뒤돌아보니 늘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가족여행을 미뤘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흠에 묻고 흘린 첫 눈물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부재의 아픔이었다면 지금 흘리는 눈물은 받은 사랑을 돌려 드리지 못한 데서 오는 회한의 울음, 반성의 울음입니다.

언젠가 입으려고 아끼던 옷을 꺼내 보니 곰팡이가 껴서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늦은 후회만 합니다. 늘 내일을 기약하며 지금 즐겨 마땅한 일들을 자꾸 미루고 있었지요. 찾아보면 당장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언젠가는'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앞의 작은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것만 생각하다가 정작 아름다운 풍경을 다 놓치고 마는 여행사 관광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내 인생의 볼륨이 이토록 빈약하다는 사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실망하게 됩니다. 제 삶의 부피가 너무 얇아 겨자씨 한 알

심을만한 깊이도 없음을 알게 되었지요. 솔직히 말해서 제 인생의 양감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많이 우울하고 아픕니다.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보이던 푸른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구나 하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늠할 수 없는 죄의 무게, 과거의 실수와 저 자신에게 실망스러웠던 일들, 모난 말에 속상함을 감출 수 없었던 순간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애써 잠들었던 날들, 자존마저 부정하고 또 밀리듯 살아왔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나 너무나 슬펐던 모든 지난날, 하지만 아무리 날 선 마음이라도 시간에만큼은 흔쾌히 자신을 내어주나 봅니다. 처음에는 이 질은 어둠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고 지루하게만 느껴지지만 조금씩 적응이 되다 보니 이제는 바깥보다는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어둠이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니다.

어느 성직자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제부터 명함 없이 사세요,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을 때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목표한 일을 성취하는 맛으로 살지만, 명성이 사라지면 이름값에 기대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면 됩니다, 다 내려놔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에서 얻는 가치는 사뭇 달라진다는 것을, 성공의 척도를 흔히 부와 명예에 두지만 살면서 내 이름 뒤에 붙는 명성이나 직위는 나에게 준 역할일 뿐,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가치가 아니었음을...

3남 6녀의 9남매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유년 시절을 어렵지 않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특별하셨습니다, 야단보다는 격려와 응원이 늘 먼저였지요. 요즘 들어 부쩍 부르지만 해도 가슴을 짝 채우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족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그토록 따뜻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은 여전히 저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전에 “살았으면 살아진다(살면 살아진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때 몰랐습니다. 거품도 꺼지고 나서야 거품인 줄 알게 되고 꿈도 깨고 나서야 꿈인 줄도 알게 되는 것처럼 이별을 통해 부모님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고 그렇게 떠난 부모님은 늘 저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기도 목이 메어 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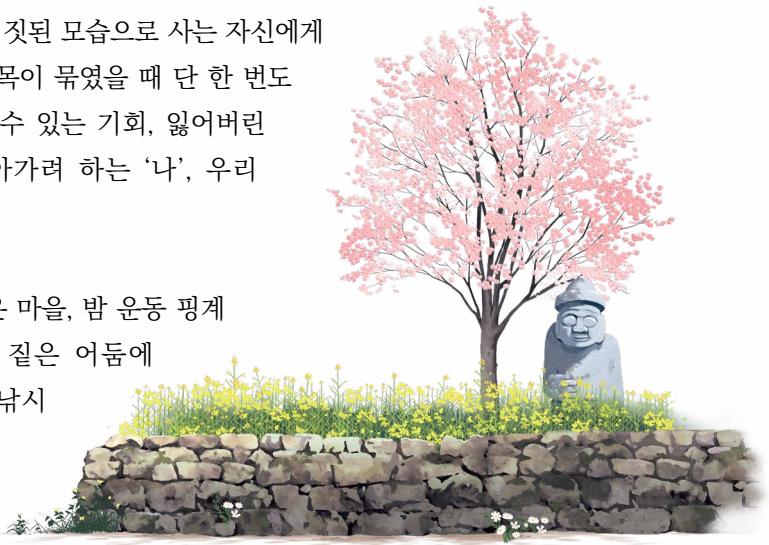
서른에 결혼해서는 남편을 바꾸고 말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마흔에는 아이들을 바꾸어

보겠다고 매를 들곤 했습니다. 지금은 손을 넘어야 바꾸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누군가 말한 대로 이곳은 그들만이 서식하는 곳, 세상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짙은 그림자에 휩싸이는 곳,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찾아오는 대로 구멍 뚫린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십 분만 만나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세상에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기에 놓아 버리고 싶은 절망의 순간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립니다. 창살 너머 내리는 비조차 가슴이 아파서 오지만 그 내면에는 또 다른 희망이 섞여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비, 봄비였으면 하는 착각 속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지나간 시절의 아픔은 눈물로 용서하고 오늘이 있음에 감사하며 간절한 바람이라 하면 시간이 지나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매 순간 자유를 갈망하며 주어지는 형벌의 시간을 고통으로 안고 성실히 생활해 왔던 수용 시간이 끝날 즈음이면 여태 몸속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 나만의 봄비, 나를 위한 봄비에 묻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먼 곳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거짓된 모습으로 사는 자신에게 지쳐서 일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발목이 묶였을 때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던 내 모습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가려 하는 '나',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내가 살았던 ○○도 동쪽 어느 작은 마을, 밤 운동 핑계 삼아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짙은 어둠에 파묻힌 밤바다에 비치는 수십 척 낚시 배의 어화 불빛은 마치 바다 위로 하늘의 별들이 소풍 온 듯합니다. 정말 그림고 그림습니다.



작품평

자신에게 온 복을 모르고 욕심을 더 부리면 꼭 탈이 나더군요. 과식을 하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9남매의 늦둥이 막내라면 부모님과 오빠,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컸겠네요. 그 행복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을 테지요.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과 동료와 가족과 벗들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후회는 짧아야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아주 길게, 다채롭게 잡아야 합니다.

봄비



정승환

문득 생각에 잠겨본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어떤 사물에 또는 자연풍경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에 잠긴다. 소소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전부 비는 내리지만, 봄비의 느낌은 사뭇 다르다.

나는 유독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좋아하고 특히 분위기가 좋고 풍경이 좋으며 아담하고 조용한 카페를 찾아다니고 자주 간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차분하게 이것저것 생각에 잠겨보고 풍경도 보고 날아다니는 곤충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어 보곤 한다.

카페를 자주 가다 보면 계절이 변화되는 것도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으로 알 수 있는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매년 찾아오는 봄에, 카페에서 보고 보슬보슬 봄비 소리를 들으면 새로운 올해도 시작이구나, 작년 한 해의 나, 다시 리셋 되는 기분으로 새로 시작되는 올해의 나를 머릿속에 그리게 해준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내 모습에 감성팔이를 한다며 얘기하고 웃지만 나는 이런 시간이 힐링이 되고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나는 잘못된 선택으로 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다. 처음에는 가족 원망도 해보고 나를 미워하며 신세 한탄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다. 그리고 약 한 달간은 시계도 없고 빛도 안 들어오고 밖도 잘 안 보이는 답답한 독방에 수감 되어 있었다.

그때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것 또한 적응해가는 나를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있는 그 방에서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을 두고 계획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나를 질책하고 채찍질했다.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일기를 쓰고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에 수긍하며 잘못된 과거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자 다짐하며 한 달의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지금은 8명이 한방에서 지낸다. 쇠창살 밖으로 산도 볼 수 있고 놀러 온 고양이, 참새, 까치, 까마귀 등 많은 동물과 하늘, 구름, 밤하늘, 별도 볼 수 있다. 누군가와 이야기 할 수 있어 행복하고 창밖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지금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내가 이런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올해 겨울은 여느 때보다 눈이 많이 내리고 일찍 겨울이 찾아온 것 같다. 매일매일 영하 날씨이며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는 상상도 못 할 눈이 내렸을 것 같다. 아침에 기상하여 창밖을 보니 소복이 쌓인 눈이 얼마나 이쁘던지... 만져보고 싶었다.

눈을 보면서도 잠시나마 멍하니 생각에 잠겨본다. 이 추운 겨울이 지나 새해가 오고 봄이라는 계절이 포근하게 다가올 때쯤 이곳에서 처음 보는 봄비, 처음 들어보는 봄비의 소리, 과연 그 느낌은 어떨까? 사회에서 매년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1년을 계획하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지게 하던 봄비, 이곳에서 처음 맞아보는 봄비의 느낌은 다르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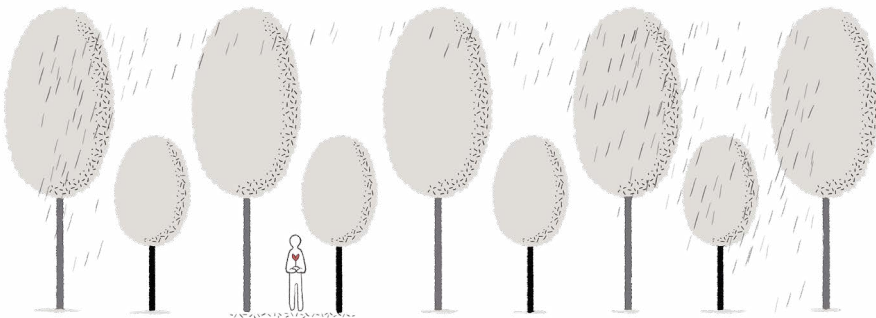
사회에서와는 다른 느낌의 계획과 각오를 할 것이다. 새사람이 되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자, 건강한 육체를 만들자, 나의 인생 2막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가 아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성하고 내 모든 나쁜 행동, 습관, 버릇들을 지울 것이다. 새해에 찾아오는 봄비가 기다려진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이번의 일로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몇 단계는 더 성장할 수 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결코 헛값만 받고 무의미한 시간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매년 나를 설레게 하는 봄비를 기다리며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꼭 좋은 사람이 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그 날을 기리며 매년 나를 설레게 하는 봄비같이 나를 기다리는 사회가 되길 나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나를 채찍질할 것입니다.

사람이 순간순간의 생각에서 모든 것이 즐겁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불만이 생기고 나빠 보이고 안 좋아 보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곳에서 별을 받고 있지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미래의 저를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작품평

봄비를 기다리는 소회를 기성 수필가 못지않은 멋진 필체로 써 내려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분이 왜 그곳에 가게 된 걸까요? 사색과 독서의 시간을 찾값 내지 않고 무료로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봄비를 맞고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그대가 겪고 있는 이 시련도 개화의 날을 위한 봄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봄비와 함께



최바울

차갑던 겨울이 지나면서 따스한 봄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봄비가 내려옵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왜 유독 감성에 젖어드는 걸까요.

저는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녀의 미소가 더 짙어져 웃음 짓다가도 그리움에 그녀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 날도 비가 내렸고 마침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4년차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 첫 직장으로 출근을 하던 새내기 직장인이었던 저의 여자 친구는 일을 다 끝내고 퇴근 준비 중이었고 저는 1시간 정도를 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보통은 인사만 하고 퇴근하던 그녀가 저에게 다가와 언제 퇴근 하냐고 물으며 저녁을 같이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이 아직 안 끝났다며 다음에 먹자고 했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밖에서 기다리겠으니 천천히 끝나치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일단은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빠르게 일을 하였습니다.

허둥지둥 일을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 바라본 시계는 어느새 1시간이 훌쩍 흘러있었고 황급히 밖을 나서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회사입구에서 그녀가 비를 피해 여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안함에 왜 여태 기다렸냐고 비도 오는데 안 나오면 연락하고 먼저 가지 그랬냐고 말했고, 그녀는 괜찮다고 일은 잘 마무리하고 나온 거냐고 물어 마무리 잘 했으니 배고플 텐데 빨리 밥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먹고 싶다는 걸 사주려고 뭐가 먹고 싶으냐고 묻는데 한사코 제가 먹고 싶은걸 먹으러 가잡니다. 저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고 '여자들은 고기를 싫어하지는 않겠지.'란 생각에 고기를 먹자고 했고 그녀도 싱글벙글 웃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는 신입으로 들어온 그녀가 마음에 들었고 좋아하고 있던 터라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고기 집으로 가서 고기를 먹으며 대화를 하는데 기다린 이유가 너무 궁금해 이유를 물었더니 저의 생일이라 저녁을 같이 먹고 싶었답니다. 자취한지 5년째에 일이 바빠 생일인지 잊고 있던 저는 그녀에게 제 생일을 말한 적이 없었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녀에게 문자 카카오톡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설레었고 고마웠습니다. 그녀도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그녀의 집에 그녀를 배려다주려고 차를 타고 가던 길. 저는 너무 떨려 아무런 말도 못하고, 노래만 틀고 그녀의 집 앞 언저리에 다다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집 앞 아파트 입구에 다다를 무렵 그녀가 드라이브를 좀 더 하자고 말했고, 저는 차를 돌려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이때가 기회인 것 같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녀에게 대뜸 나랑 사귄래? 라고 물으며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당연히 저를 좋아했고 바로 그러자고 답을 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했고 일주일이 흐른 뒤 사귀자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지만 왜 2주가 아닌 일주일이 돼서 답을 해주냐고 그녀에게 물었고 6살 연하인 그녀는 귀엽게도 자기도 바로 사귀고 싶었지만 너무 쉬운 여자로 볼까봐 2주의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었고 2주는 너무 길고 일주일 만에 대답한 건 자기도 빨리 사귀고 싶었고 답을 기다리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더는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을 넘게 사귀어 왔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저는 그녀에게 실망을 시켰고 죄를 지어 미결인 상태로 재판 중이며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저는 나가는 날까지 오래 걸릴 것 같아 접견을 온 그녀에게 올 때 마다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많고 너는 어리니까 기회가 많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도 괜찮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번 잘못된 건 반성하고 나와서는 다신 그러지마. 한번만 용서해줄게라며 지금까지 봐온 오빠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했죠.

정말 너무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녀와의 접견을 마치고 돌아설 때면 그녀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고 저를 믿고 기다려준다는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제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꼭 결혼하자며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반성하고 반성문을 쓰면서 두 번 다신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매일 기도드립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밖에서 힘들게 지내며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과 여자친구를 지켜 주시고 잘 보살펴 달라구요. 또한 제가 다짐한 대로 살게 하시고 바른길로 인도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가족과 여자친구를 못 보고 있는데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만나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살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사회에 복귀하여 가족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기다려준 만큼 보다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작품평

어느 누군들 인생길에 굴곡이 없겠습니까. 막다른 길도 만나고 낭떠러지 앞에도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두고 그곳에 가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죄와 벌은 함께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 시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멋진 내일을 그곳에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비



황인식

어제와 다를 것 없던 화창한 그날의 아침 나는 답답한 마음에 운동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포근하고 시원한 바람에 답답함도 같이 날아가는 그 곳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운동장 옆 큰 느티나무 밑으로 도망치듯이 숨었고 어깨를 적시며 나뭇잎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 문득 떠오르며 피식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때의 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2010년 3월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우산이 없던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비를 맞으며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내 머리위로 노란색 우산이 씌워졌다. 같은 학교 교복을 입고 있던 그녀는 나에게 비 맞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며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준다면 같은 우산을 나눠 쓰고 봄비 속을 같이 걸었다.

우린 얼마가지 않아 정류장에 도착을 했고 그녀는 내게 우산을 쥐어준 뒤 나중에 만나면 돌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빗속을 달려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난 그 이후로 그녀를 찾아보려 학교를 다 돌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녀는 나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갔다. 그러던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봄비가 내리는 날 우산 없이 급히 걷는 어느 뒷모습을 보고 나는 바로 그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빗속을 달려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늘 지니고 다녔던 노란색 우산을 내밀었다. 그녀도 나를 기억하듯이 웃으며 살며시 비추는 햇살아래 우리 마음에도 봄이 피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처음 우산을 씌워주던 그 날 그녀는 가정형편으로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고 우린 같은 시간에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교문을 다른 이유로 나오며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봄은 우리에게 말없이 다가왔고 봄비는 우리에게 사랑비였다.

그녀는 그 이후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성공적으로 취업도하며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온 것 같았다. 우리는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가는 도중 서로의 일을 위해 타지로 멀어졌지만 나는 서울에서 그녀는 부산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왕복 6시간의 긴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며 남들과는 다르면서 다르지 않고 남부럽지 않은 날들을 지내오다가 드디어 우린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며 2년, 3년 행복을 쌓아가는 와중 드디어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사가 우리를 찾아왔다. 나는 이제 아빠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친구, 가족, 지인 등 가리지 않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며 일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나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실수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감이 되었고 곧 태어날 천사 같은 우리 아이와 그런 우리아이를 8개월째 품어주고 있는 나의 아내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 비록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하고 반성하며 인고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다시 사회로 나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낼 수 있는 그 날까지 반성하고 기도하며 보내야겠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될 때 웅크리고 있던 꽃들도 새롭게 시작하듯이 나도 봄에 피는 꽃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활짝 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작품평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입니다. 봄비 오는 날 노란 우산을 씌워준 같은 학교 여학생을 비 오는 날 다시 만나 그 우산을 되돌려주었으니 말입니다. 훗날 부산과 서울을 오르내리며 데이트하고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기를 두고 영어의 몸이 되었으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봄비가 맺어준 인연이니 봄비 오는 날 세 식구가 외출할 날이 곧 오겠지요. 희망을 갖고 미래를 멋지게 설계하기 바랍니다.

“테마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슬픔 활용법




박길웅

슬픔이 찾아오면 누구나 힘이 든 법이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낫지 않는 불치병처럼 언젠가 한번쯤은 찾아오는 슬픔이란 벽이 지금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적막이 흐르던 새벽을 가볍게 두드리듯 내리는 이 비가 슬픔을 더욱 질게 만든다. 빨라지는 맥박의 음률이 빗소리와 함께 뒤섞여 슬픔을 만들어 내고 눈물로 이 고통을 작게나마 토해내고 있다. 비를 바라보는 내 두 눈은 애처롭기만 하다. 눈물과 고통을 자아내고나면 쓰나미처럼 한순간에 몰려오는 허전함만이 이 슬픔이 다녀갔음을 짐작케 한다. 가슴이 아려온다. 한켠에 묻어두었던 고통을 서서히 끄집어내는 내 자신이 누구보다 싫어진다. 영어의 몸이 되어버린 지금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절박함이 지난 기억들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20대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나는 남들과 다르지 않았다. 젊음과 패기를 앞세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여 성공이란 결실을 이루었다. 거침없이 달렸던 것 같다. 그래서 슬픔 따윈 몰랐었다. 20대의 난 슬픔을 알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서른 즈음이 되었다. 그 시기에는 세상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실패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시련 앞에 쓰러졌을 때 비로소 슬픔을 배우게 되었다. 굉장히 괴롭고 아팠다. 가장 힘든 시기임이 분명한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 이겨낼 수 있었다. 사랑으로



슬픔을 덮어버린 것이다.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주어졌을 때 진정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서른여덟의 다소 늦은 나이에 딸아이를 얻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나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발목을 붙잡았다. 아내에게…. 그리고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딸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해 너무나 미안했다. 수의를 입고 처음 아내를 맞이했을 땐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고 초라했다.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아내일텐데 영어의 몸이 된 나보다 힘이 들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슬픔에 목 놓아 우는 아내를 생각지도 않고 내 자신에만 비판하고 자책하며 아내를 등한시했다. 아내의 슬픔이 쌓이는 줄도 모른 채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질 수 있었기에 그래야 된다고 믿었다. 참 부끄러운 남편이자 아빠였다. 가장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 철없는 아빠에서 든든한 아빠로 거듭나는 용기까지 필요했던 것이다. 비록 수인의 몸이 되어 실의에 빠져있지만 슬픔에서 빠져나와야만 했다. 슬픔에 빠졌다고 해서 남은 인생마저 끝난 것이 아니었기에 이 슬픔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슬픔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마흔을 앞두고서야 깨달았지만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신도 있었다. 담장 안 생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지내는 특수한 환경이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가족을 떠올리니 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오롯이 슬픔을 활용한 변화된 삶에 한발짝씩 다가갈 수 있도록 집중하였다. 담장 안에서 비관적일것만 같았던 슬픈 삶이 오히려 나 자신을 다시금 바로 잡아가는 새로운 발판이 되었다. 만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흔이 넘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다.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더욱 열심히 해서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요즘은 아내가 찾아오면 수인의 몸이 부끄럽지가 않다. 여전히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싶다. 이곳에서나마 뭔가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이 슬픔을 활용한 용기가 아닐는지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만학의 꿈을 이루고 나면 다음 목표를 향해 도약해 나갈 것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으니 자격증 시험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도전해보고 싶다. 늘 아내는 나를 위해 힘차게 응원해준다. 그래서 힘이 난다. 가족이라는 버팀목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 힘든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아직



가족을 품에 안으려면 힘겨운 시간들을 동반한 어둠이 내 앞에 드리워져 있다. 까마득하기는 하지만 분명 이겨낼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 언제까지 낫 놓고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시련이라면 먼저 부딪혀보고 슬픔이라면 고통도 감내하며 타성에 젖은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얼마 전 딸아이의 첫 돌이 지났다. 머리맡에 놓아 둔 사진에는 내 자리는 비워져있다. 기쁜날임에도 웃고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슬퍼보이는 아내의 미소가 내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후벼파는 것 같다. 앞으로도 딸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에는 늘 내 자리는 비워져있을 것이다. 아빠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불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한없이 부족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부끄러운 남편이자 아빠가 되기는 싫다. 나 또한 나름의 성장을 거두어 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사진에는 오래도록 비워두었던 아빠의 빈자리를 되찾아주고 싶다.

슬픔이 담긴 활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내포되어있다. 내가 찾은 방법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토대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훗날 사회에 복귀했을 때 그때는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자 아빠이고 싶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임이 자명하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갈 것이다. 어둠의 끝에는 항상 빛이 존재하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꺼이 어둠속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 두렵지는 않다. 날 믿고 기다려주는 아내와 딸아이가 있으니 그 무엇보다도 든든한 가족이라는 보호막이 날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 그치면 구름을 걷어내고 다시 태양이 뜬다. 태양에서 뿜어내는 따스한 햇살이 젖은 땅을 말리고 빛이 선명할 때 내 두 눈으로 보았던 애처로운 눈물 또한 비와 함께 멈출 것이다. 이제는 어리석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지 않겠노라고 머리맡의 사진에다 약속한 뒤 입을 맞추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작품평 : 만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흔 넘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아름다운 도약입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태양이 뜨는 것처럼 다음 목표를 향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분명하고 표현력이 뛰어난 우수 작품입니다.



길 위에 있는 깨달음



박준현

얼마 전 교화방송 프로그램 중 <곽씨네 LP바>라는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배우 하OO가 나온 적이 있다. 그 당시 본인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준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좋은 깨우침을 주어 기억에 남게 되었다.

이야기는 이렇다. 평소에 걷기를 좋아하는 하OO는 친한 지인들과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걷기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큰 프로젝트로 국토대장정을 계획하고, 해남까지 걷는 과정을 영화화 할 정도로 그 취미는 대중적으로 유명하다. 그렇게 땅끝 마을 해남까지 긴 거리를 걷기로 하고 난 후 하OO는 이번 도전 이후에 힘들게 끝까지 버텨서 해남에 도착하고 나면 분명한 삶의 깨달음 같은 것을 얻게 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길의 끝 해남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과 같은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허무한 마음에 크게 실망해서 회식자리에도 참여하지 않고 서울로 곧장 올라와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날은 그 국토대장정 기간 중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어느 날은 힘든 고난을 팀원들과 함께 극복했던 일이 생각나기도 하는 등, 그 당시의 경험으로 얻게 된 점이 많았다고 하면서 '제가 원했던 삶의 깨달음과 같은 이치는 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 있던 거였어요'라고 얘기한다.

나는 이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하○○가 걷게 된 그 길을 나의 수용생활에 빗대어 생각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많은 시간동안 자기반성을 하고 다짐했던 생각,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지금의 마음을 출소 이후에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도 했고 이 시간들이 헛되게 지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많았던 나의 마음을 그 문장 하나로 다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군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제대 날, 전역증을 받고 부대를 벗어나면 알 수 없는 헛헛한 마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지도 않고 허무한 느낌이 든다. 내가 기대했던 생각과는 다른 기분에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알 수 없는 기분이 든다. 완전히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랬다. 하지만 제대 이후에는 그 군생활의 경험과 시간들이 긴 시간동안 인생에 영향을 준다.

수용생활 또한 그럴 것이다. 출소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와는 다른 기분이 들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느꼈던 생각과 다짐들 또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라진다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가 느꼈던, 내가 느꼈던 경험을 뒤돌아보면 이 길 위에 있는 시간들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안겨줄 것이다.

희망이 없는 삶처럼 지루하고 의미 없는 삶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자유를 제한받는 수용자가 되었지만 결코 희망을 제한 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 수용생활의 길 끝에, 다시 우리에게 찾아 올 자유로운 내 인생의 길 위에, 희망의 씨앗을 얼마나 뿌릴 수 있게 될지 결정지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이 수용생활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많을지, 잃게 되는 것이 많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나간 내 수용생활의 시간과 앞으로 남은 시간 모두 나에게 큰 꽃이 되어 피어줄 희망의 씨앗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에 충실한 생활을 해야겠다.



작품평 : 깨달음은 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 있다는 말, 공감이 갑니다. 군생활처럼 지나간 고난의 시간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글의 전개와 자신감 있는 표현력이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소통·공감 그리고 배려



송오현

마약... 네 맞습니다.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보여지는 두 글자의 단어만으로도 섬뜩해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모두가 혐오하는 범죄죠. 이번 사건으로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이가 하나, 둘 떠나가고 멀어져가는 믿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저의 인생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소통·공감 그리고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소통·공감·배려 지금까지 이 3가지 보통 명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었던 것 같다. 짧게 설명하면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자의적인 해석으로 타인에게는 그것이 소통인 양 또는 그것이 배려인 양 독선적인 행동과 강요를 함께 해 상상만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괴상한 퍼포먼스를 많은 이들에게 오랜 시간 보여 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해 본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통상적인 영업 행위라고 가정했을 때, 강매나 밀어내기 등의 극단적인 표현도 넘치지 않은 표현일 것이다. 그렇게 공감 없이 억지스럽게 꿰 맞추며 제멋대로 세상을 살아 온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배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이나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또는 상대방

입장에서의 결정, 양보 등이 될 텐데 나의 행동들을 돌이켜 보면 원숭이처럼 흥내 내는 정도에 머물거나 수박 겉핥기라는 속담과 같이 수박 맛도 모르면서 아는 체한다는 해석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반성의 글을 쓰면서 문득 내가 잘한 일 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은 없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신문에 기사화될 정도로 자랑할 만한 일, 가족 모두가 좋아하며 행복했던 일, 보여주기가 이기는 하였지만 봉사활동으로 직원 모두가 부듯해했던 일 등 스치듯 떠오르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행위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따뜻함과 일치 했었다'는 전제를 하면 언급할 만한 사례는 아쉽게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부끄러운 과거만 남겨진 지금... 과연 앞으로는 잘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지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고,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 앞에 놓인 돌부리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서 휘청거리는 중이지만 절대로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심을 다시 잡고 돌부리를 딛고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햇빛을 들고 서 있을 것이다.

내가 들고 있는 햇불이 밝힐 수 있는 거리는 주변 몇 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나와 같이 햇불을 들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멀리서 햇불을 들고 있는 나를 보았을 때 그 불빛을 보고 "저기 사람이 있다!", "저기 누군가 있다!" 고 소리치며 흩어져 있는 이들이 모여든다면 지금의 나처럼 혼자라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사라짐은 분명해 보인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고백하는 이 글을 읽고 나와 같은 공간에서 갈팡질팡하는 많은 이들에게 햇불의 따뜻함과 밝음이 전해져서 각자의 앞에 놓여있는 돌부리를 '디딤돌'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작품평 :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고, 딛고 일어서면 정말 디딤돌이 됩니다. 돌부리를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글을 이끌어가는 솜씨가 탁월합니다. 비유법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소통, 공감을 배려와 연결시켜 주제를 잘 드러낸 수준작입니다.

모나미



조효선

볼펜 한 자루의 잉크가 다 떨어 질 때 까진 매일 쓴다는 가정하에 보통 한달 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 작은 볼펜 하나에서 나는 나의 열정과 노력을 엿보기도 했었다.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쓸 때 잉크가 떨어져 더 이상 볼펜이 볼펜으로써 생명을 다 했을 때 나는 어딘가로 한 걸음 다가가는 느낌을 보곤한다.

축구 선수가 하루종일 코너킥 연습을 하다 바나나 썬이 들어갔을때나 수영선수가 기록이 단축됐을 때 이런 느낌은 아닐까 예상을 해본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이 반복될 때 공부도 안되고 글 또한 잘 안써진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했다. 슬프고 고뇌 하는 시간이 길어 질수록 내 공부의 진정성 이나 글 쓰는 깊이가 더욱 깊어 지는게 느껴질 만큼 나는 괴로워야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곤 했었다. 어느 시인은 괴로움을 꿈을 향한 밑거름이라 했는데 정녕 이것이 내 밑거름이라면 나는 정말 마다 하고 싶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잘하는 인간이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가여워 진다. 누군들 그냥 잘하는게 좋지 괴로워야 잘하는건 생각만 해도 마다 할 것이다.

어느날 인가 볼펜 잉크가 다 떨어져 다른 볼펜을 꺼낼 때 생각해 보았다. 오늘의 나는 어땠나 오늘의 나는 행복했나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은 나는 슬프고 고뇌해야 잘하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행복을 위해 하는 것 이었다. 별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었다. 슬퍼야지만 잘되고 힘들어야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글을 쓰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었다. 슬픔과 고뇌를 느껴야만 행복을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쳤을 때 나를 충전하기 위한 힐링 같은 것이었다. 생각하기 나름 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글 쓰는 것과 새로운 것을 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고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 하는 행동 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 슬프고 힘들때 슬픈 감정을 쓰는 구나 생각이 들고 기쁠때 기쁜 감정을 쓰는 구나 생각이 들고 모두 같은 글을 쓰는 것으로 느껴졌다. 공부를 할 때도 오늘은 조금더 잘되는 날이고 오늘은 피곤한 날인가 보다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글쓰기나 공부가 우울한 나를 위한 해결책 같은 강박관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좋아서 하는 힐링이라고 느껴지니까 노트나 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펼칠 수가 있었다.

작은 차이 같아도 확실한 차이점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졌다.

나는 작은 모나미 볼펜하나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철학자를 흉내 내는 것처럼 깊은 생각의 답을 찾을수 있었다. 물론 이것이 진리가 아닐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찾은 답중에 제일 좋은 답이었다. 나는 마음에 든다.

교정시설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운동으로 즐거움을 찾고 어떤이는 먹을것으로 찾고 어떤 이는 대화나 장기, 바둑으로 찾고 책이나 잡지나 사진 등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즐거움이 있지만 나는 그중 글쓰기인가 보다. 이 안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도 하고 많은 생각과 경험을 쏟아내어 만드는 창조물 같은 느낌이랄까 작은 펜과 조금의 잉크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내는 놀라움이랄까. 나는 글쓰기에서 웅장함을 그리고 성취감을 느껴 빠지게 된것만 같다. 부수적으로 공부도 있는데 공부는 뭐랄까 내가 멈춰져 있는 느낌을 사라지게 해줬다. 이 안에서 지내다 보면 가끔씩 점점 고체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기체라고나 할까 자유로운 느낌을 받곤한다. 앞으로도 나는 볼펜을 쥐고 많은 시간을 보낼것만 같은데 더 이상 슬퍼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좋아서 펜을 찾는 것이기에 조금더 여유로운 즐거움을 누릴수 있을것만 같다. 지금처럼 말이다.



작품평 : 일상의 사소한 소재를 택하여 사색의 세계로 끌고 간 생활 속의 문학입니다. 문학은 경험과 상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하는 작업입니다. 볼펜 하나를 통해 성찰의 시간을 갖고 괴로움은 꿈을 향한 밑거름이라는 주제를 찾아낸 우수작입니다. 문학적 재창조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성공 공식



저는 다른 과목보다 수학과 과학(물리) 과목을 좋아했었습니다. 많은 것을 암기하지 않아도 수학은 공식에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되고, 또 그것이 맞는지 역순으로 계산해 보면 정답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고, 과학은 자연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므로, 항상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을 보면 바로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과 과학은 물리학뿐만이 아니고 인문학까지도 모든 학문을 수치상으로, 논리적으로 알려주는 기초가 되면서도 모든 학문을 명쾌하게 이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묘한 우리 인생도, 또 모두가 갈망하는 성공이나 행복도 성취하는 간단한 공식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남모르게 타인을 돕는 이타주의(利他主義)고, 인생이란 멋지게 고생하면서 남을 돕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원리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노력하고 갖추어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습관화만 시키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습관화의 방법은, 하루에 최소 3번, 일주일에 최소 3일, 이것을 최소 3개월 지속하면, 마치 밥을 먹고, 이를 닦지 않으면 불편하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은 내가 만들지만 결국 습관이 내 운명을 조종하는 나의 천성(天性)이 되어서 내 인생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래 참으며,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도 사랑인데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이지요. 인내가 빠지면 다른 것이 다 이행되어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실패라는 말은 참지 못하고 중단할 때 실패이지 실패라는 말은 원래 없는 것이랍니다. 매우 맑은 물은 깊은 바닷속도 흰히 보이게 하듯이, 이타주의는 맑은 물처럼 모든 학문, 기술, 인생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하는 투시경 역할도 하고 창의성을 발현하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타주의는 칭찬받지 않은 것만 유효하답니다. 결국 나도 태어난 자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먹고, 배우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숨을 쉬는 것까지도 공기의 도움, 더 나아가 공기를 만들어 주는 창조자 없이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것은 당연하며, 내가 형성한 재산도 모두 내 것이 아니므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해당하는 것이지요. 성공이란, 인생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남모르게 도와주는 것이고, 또 죽을 때는 이 두 가지만 가져간답니다. 죽음도 삶의 연장이고, 애벌레가 나비로 새로운 세상으로 부활하는 것을, 애벌레의 한정적인 지식만으로 판단하니까 모르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즉 가장 중요한 이타주의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지녀야겠지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므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다가도 착각하고 산대요. 또 눈 덮인 넓은 운동장을 걸어갈 때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도착할 건너편 큰 나무나 목표물을 보면서 걸어가면 꽤 반듯이 걸어가갈 수도 있고, 고난과 난관을 극복하는 원동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 자식들만이라도 일찍 알려주면 시행착오를 덜 겪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훈을 「항상 모든 사람한테 무엇을 도와줄까 생각하자」로 정해서 식탁 위에 부착했었습니다. 이타주의 사고방식을 정립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가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시다. 자랑스러운 자식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면, 자식들은 부모의 행동과 말을 쉽게 답습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들한테, 옆집의 아무개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니,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아들이 말했답니다.

이런 비밀들을 깨닫게 된 이유는 :

1. 우주의 99.8%이고 반도체, TV, 온난화, 에너지, 환경문제, 현재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 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자연의 기술인 플라즈마 기술을 42년여 동안 수출, 개발, 제조하면서 알았습니다. 화성에 인공위성을 보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수천 년 동안 자연 현상을 10%도 밝혀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 10% 현상도 본질은 전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저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학문, 종교, 철학, 소유개념, 법률, 지식 등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 현상조차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도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저의 모든 생각, 사고방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의 잡초 하나도, 겨울에는 땅속에서 잠을 자다가 어떻게 봄이 오는 것을 알고 힘겹게 땅을 헤집고 올라와서 오직 사람들을 위해 자연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을 반복할까? 사과나무에 꼭 사과가 열려야만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대추가 열리지 않고 사과만 열릴까? 모든 것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2. 저의 자식들이 어렸을 때 지구의 자전, 공전을 설명해주고 속으로 속도를 계산해 보니 자전은 시속 약 1,670km, 공전은 시속 약 10만 5천 km인데 이렇게 큰 지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1초도 착오 없다니요? 또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계 전체 크기의 행성계가 약 천억 개가 있는데, 우리 태양계는 1초에 210km 공전하고 또 우주에는 우리 은하계 크기의 은하계가 약 천억 개가 있다는데 초속 27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행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기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만 말 할 수 있을까요?

3. 원수도 사랑하라

플라스마는 대기권과 반대 개념으로 모든 첨단제품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장 경제적이고 영원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또 수백 년 동안 훌륭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효과까지도 모두 자세하게 발표되어 있지만, 플라스마 기술만 1970년대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업가로서는 매우 부족해서 여러 차례 사기, 배신 등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플라스마 공정을 직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면 최소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데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연의, 기적의 현상을 이해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직접 해보아야만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결론은 저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준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 지구 대기권

5분만 코를 잡으면 모두 사망하는 공기, 일주일만 마시지 않으면 사망하는 물, 모든 유독 가스, 약취,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세균을 제거하는 태양광 파장들을 죄인이든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조사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태양, 이 3가지 삼총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5. 정의(定義)로운 사고방식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의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의 잠정적인 정의는 ① 약자 편에서고, ②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인데 공동체는 결국 내가 먼저 희생, 봉사해야만 지속되겠지요?

6. 협력

부를 3대까지 유지하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단합을 못 해서, 즉 나의 일처럼 돕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겠지요. 현대에서 150년 동안 부를 유지하는 유대인 로스차일드가(家)의 자산이 5경 원 정도 된다는데, 핵심이 5형제의 단합을 제일 중요하고 큰 덕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 과욕·교만

모든 것의 적이고 패망의 선봉입니다. 확실한 이타주의 철학은 매우 유용한 처방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타인을 도와주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타인한테 상처까지 주면서 과욕을 부릴 필요가 없겠지요. 뱉내고 싶은 여력이 있다면 그 에너지로 남을 도와주어야 하니까 교만에 사용할 여분이 없겠지요.

8. 멋지게 남을 도와주는 방법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① 많은 독서도 필요하고, ②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려면 엄청난 고통의 훈련을 해야 하듯이 고난, 결핍도 필요하고, ③ 정직해야 하고, ④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傾聽)도 잘할 줄 알아야 하고, ⑤ 영어 약(Medicine)의 어원인 명상(Meditation)도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 ⑥ 지속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건강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9. 꿈

최종적인 꿈은 의사, 판사,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활용해서 약자를 돕는 것이 진짜 꿈입니다. 이런 직위를 활용하면 훨씬 쉽게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쉬우므로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의사는 환자한테 안타까운 눈빛으로 손만 잡아주어도 반절은 치료될 것이고, 판·검사는 피의자한테 억울한 일은 없는지 질문만 해주어도 억울함이 많이 해소되겠지요?

저는 자식들과 약속도 했었고, 저의 인생철학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저의 그릇에 과분한 플라즈마 원천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십 가지 제품을 다 완성하려면 향후 20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자식들과의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작품평 : 인간은 멋지게 고생하면서 남을 돕기 위해 태어났다는 인생관이 훌륭합니다. 남모르게 남을 도우며 사는 이타주의적인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결론이 독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깊은 사유와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진 우수한 작품입니다.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수필가 문복희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땅 독도, 우리 음식 김치,

그리고 옷 한복

김상철 | 동덕여대 교수

최근 가까운 이웃 나라들에 의해 원래 우리 것이었던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우리 음식의 대표 격인 '김치'를 '기무치'라는 이름으로 국제식품규격회의에 등록하려 한다 해서 큰 논란이 되었었지요. 한참

맹위를 떨치고 있는 'K-pop'에 대해서도 원조는 'J-pop'이라는 말로 굳이 깎아내리려 하고 있지요. 여기 더해서 중국도 '김치'의 원조가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강릉의 단오제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하고자 했을 때는 한국이 중국의 명절인 '단오절'을 훔쳐 가려 한다고 억지를 부렸지요.



치파오 | 중국을 대표하는 복식으로 청나라 만주족의 복장에서 비롯되었다. 원래는 남녀 의상 모두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피스 형태의 여성 의복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몸의 곡선을 강조하고 옆트임을 과감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강릉 단오제는 단오라는 명절을 치르는 독특한 행사방식으로 발전시켜 온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역지들을 부리다가 심지어는 일부 유튜브에 한국 사람들은 심지어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우긴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까지 방영되면서 반한 감정이 크게 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한복’도 중국 것이라 우기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또 어떤 일 때까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이른바 ‘동북 공정’이라 하여 우리나라 고대사를 모두 자기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역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도대체 중국이나 일본은 왜 이럴까요? 이는 대체로 열등감에서 비롯된 행위라고들 말합니다. 중국은 모든 것들이 자신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민족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들 이외의 국가나 민족이 주목받는 것은 참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지요.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이 우리를 강제점령하였던 시절의 조선을 생각하며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히 보입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던 나라가 갑자기 정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문화 유행을 주도하고 나라로 등장하였으니 어찌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것을 온전히 지키고 그것을 발전시킴에는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학에서는 ‘국경을 맞댄 나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양입니다. 더욱 좋은 이웃이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나라들과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중 최근 있었던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뜬금없이 한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여 큰 논란이 된 우리 옷 ‘한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중국 옷 하면 ‘치파오(旗袍)’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성의 몸 곡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양에 다리 옆 라인이 크게 터져 허벅지까지 올라가는 육감적인 옷이 바로 치파오지요. 이는 중국 청나라 때 만들어진 의상으로 청대(淸代)에 형성된 중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원래는 남녀 의상 모두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요즘은 보통 원피스 형태의 여성 의복을 말합니다.

일본의 옷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기모노(着物)’입니다. 본래 기모노는 처음에는 속옷의 일종으로 입었으나 무로마치 시대(1392~1573년)

이후 폭넓게 보급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히카마(일본 전통 옷의 바지)를 착용하지 않게 되며 '오비'라는 띠를 허리에 매는 스타일로 발전 하였습니다.

한복(韓服)은 당연히 우리 민족 고유의 옷입니다. 영어로는 우리 발음 그대로 Hanbok이라 표기를 합니다. 한복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한복의 기본적인 형태는 고대 북방민족의 스키타이계 복식이 원류인 호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복(胡服)'은 그야말로 오랑캐 옷이라는 의미의 중국식 표기로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당시의 호복은

한복의 기본 구성인 치마와 저고리, 바지 등은 변치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기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구려 고분 중 하나인 무용총의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한복이 처음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당시 복식만 보아도 한복은 이미 중국의 '한푸(漢服)'나 일본의 '기모노' 같은 남방계 복식문화와 달리 확연하게 말을 타기에 유리한 북방계 복식문화의 영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성을 중시하며 딱 붙는 옷이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로운 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직선형을 띠지만 옷을 입었을 때는 곡선이 살아나게 도와주는 미적 특징도 나타납니다. 이는 주머니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한복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한복의 형식은 하의 위에 긴 포를 입고 허리띠를 매는 형식입니다.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한복에는 왼쪽 여미는 문화가 잘 나타나고 있고, 특이하게도 옷에 점무늬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삼국 중 백제의 한복은 고구려와 달리 왼쪽 여미보다 오른쪽 여미가 발달했는데, 이는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백제의 특성상 여러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한복은 삼국의 한복 중 가장 화려했고 여성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나며, 겹옷을 입는 복식문화도 백제의 한복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신라의 한복은 백제·고구려의 것보다 조금 더 투박한 형태였지만,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당나라풍 복식이 유행하며 상류층·귀족들의 옷은 중국의 '한푸'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평민들은 여전히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 우리 옷을 입었습니다. 이후 기본적인 한복의 골격인 저고리, 바지, 치마라는



기모노 | 일본의 전통 복식이다. 원래 오소데(大袖)라는 소매가 넓은 옛날의 예복 아래 받쳐입는 속옷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훗날 겹옷으로 입으면서 겹옷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기본구조는 그대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길이나 폭, 형태 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였지요.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왕권의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과거제 시행 이후 보라색, 붉은색, 연두색, 자주색 네 종의 소매 색깔을 통해 신분을 구분하였다. 이후 한복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몽골의 고려 침입이었습니다. 고려는 원나라의 침략을 견디지 못하고 고려의 왕이 원(몽골)의 사위가 됨으로써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몽골의 공주가 고려 왕실로 오게 됨에 따라 몽골의 복식이 고려 궁중 복식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넓은 옷고름이 쓰이면서 허리춤에 혁대를 묶는 것을 대신하였습니다. 또 저고리가 짧아지고, 고름이 생기는 특징이 추가됐으며 여성들 사이에서는 하얀 천에 노란 물을 들인 치마가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고려 시대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평상복으로 하얀 '백저포(白紵袍)'를 애용했다는 점입니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백저포는 흰색의 모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때부터 흰색의 민무늬 옷이 굳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백의민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훗날 19세기에 한국을 다녀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인이 남녀를 막론하고 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페르트(Oppert, E.J.)라는 서양인은 "옷감 빛깔은 남자나 여자나 다 희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라게리(Laguerie, V. de)도 "천천히 그리고 육중하게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895년 전국에 변복령(變服令)과 단발령이 내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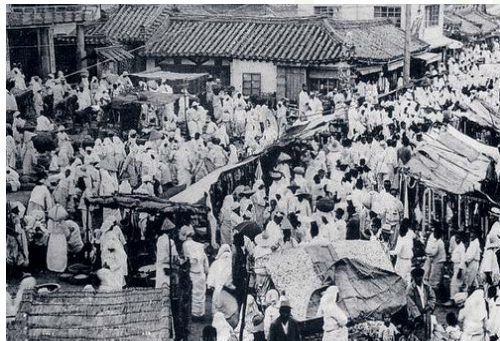
한복 | 한복은 우리 고유 복식으로 정적이며 우아하고 단정한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우며, 특히 여자 옷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가 어울려 옷차림이 단정하고 아담하다.



무용총 | 무용총은 중국 지린성에 있는 고구려 고분이다. 유명한 수렵도와 더불어 무용하는 사람들을 그린 벽화가 발견되어 무용총이라 이름 지었다. 줄지어 춤을 추는 여인들은 위와 아래가 나뉜 옷을 입고 있으며 전 무늬가 두드러진다. 한복의 원형에 관한 소중한 자료이다.

이에 항의하는 의병 전쟁이 일어난 사실은 너무도 유명하지요. 그만큼 백의를 숭상하는 한국인의 집착이 남달리 강했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최남선은 “조선 민족이 백의를 숭상함은 아득한 옛날로부터 그러한 것으로서 수천 년 전의 부여 사람과 그 뒤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의 역대 왕조에서도 한결같이 흰옷을 입었다.”고 그 유래의 오래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제 식민주의자들은 한국인이 흰옷을 입는 까닭을 여러모로 왜곡하였습니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자 망국의 슬픔 때문에 백의를 입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백의민족의 유래를 “이 민족이 겪은 고통, 많은 역사적 경험” 때문이라 주장하면서 백의를 마치 상복(喪服)이라도 되는 듯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백색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색이요 불멸의 색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 습관과 풍속은 단순히 옷감 때문에 우연히 선택된 색감이라기보다도 하늘과 땅을 숭배하는 민족 고유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백의민족 | 백의민족은 흰옷을 즐겨 입는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상복, 혹은 염료가 부족하여 흰옷밖에 입을 수 없었다고 폄해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조선 말기 거리에 넘쳐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 모습에서도 백의민족임이 잘 드러난다.

즉, 제사 때 흰옷을 입고 흰떡·흰 술·흰밥을 쓴다는 관습이 하늘에 제사 드리는 의식에서 유래했듯이 백의 역시 천제에서 유래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 이르러서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므로 복식에서도 계층적 신분질서를 여러모로 규정하여 통제하였습니다. 저고리의 길이는 길어지고 치마는 허리에서 입는 형태여서 폭이 넓어지다가 점차 저고리는 허리 윗부분으로 그 길이가 짧아졌으며 좀 더 가슴 부분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선 중기에 나타나는 복식의 특징은 남성과 여성 한복 모두 등의 길이가 길어 허리 밑까지 내려올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짧아졌습니다. 여성의 저고리는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조선 말엽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길이가 짧아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좀 더 수치를 크게 입었다면 후기에는 품도 몸에 맞도록 입게 되었다. 또한, 저고리가 치마 끝을 가려 주지 못함에 따라 치마와 저고리 사이의 거드랑이 밀을 가려 주기 위하여, 한 자정도 되는 넓은 띠를 이 부분에 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조선 말엽, 저고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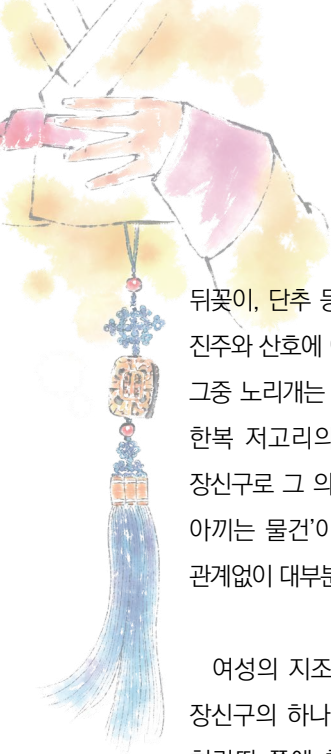
신윤복의 단오풍정 | 단오를 맞아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는 여인들이 묘사되어 있다. 가체를 쓰고 풍성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인들이 등장한다. 특히 극단적으로 좁은 소매가 눈길을 끈다. 조선 시대에는 기생 계층이 패션선도자로서 한복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길이는 축소화가 진행되는 반면 치마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길어지고 폭도 넓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한복의 변화를 선도한 것이 바로 기생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생은 연예인과 같은 역할을 한 패시니 스타였던 것이지요. 이들은 여성미를 잘 드러낼 수 있게 한복을 개량하여 소매를 극단적으로 좁히고 허리춤은 짧게 하여 입었습니다. 이를 양갓집 아녀자들이 따라 하는 풍조가 발생하자 왕명으로 이를 금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한복의 발전은 원형을 바탕으로 한 시대별 변화를 보였지만,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인 것은 근대에 들어 이른바 개량 한복이 등장한 것입니다. 짧은 치마에

흰 저고리로 이루어진 새로운 한복은 당시 신여성의 상징처럼 여겨졌지요.

이어서 한복의 다양한 장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복의 치마폭에 박힌 금박이나 은박 장식은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장식은 주로 여자 한복에 많이 쓰입니다. 박으로 장식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금박은 저고리의 깃에 쓰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고름과 함께 쓰이고 치마 아래의 경우에는 맨 밑단을 따라서만 수를 박을 하였으며, 반드시 옷에 쓰인 것이 아니며 주머니, 향낭, 땀기 등 다채로운 곳에 쓰였습니다. 은박의 경우에는 고름에 특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금박 선호에 밀려 쓰임이 적었습니다. 한복에 더해지는 장신구에는 노리개, 가락지, 귀고리, 노리개, 비녀,



뒤꽂이, 단추 등이 있으며 재료로는 금과 은은 물론 진주와 산호에 이르기까지 사치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중 노리개는 가장 대표적인 장신구지요. 노리개는 한복 저고리의 고름 또는 치마허리에 차는 여성 장신구로 그 의미는 '소중한 물건', '사랑하고 즐기며 아끼는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노리개는 신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여자가 착용했습니다.

여성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은장도도 바로 장신구의 하나였지요. 장신구는 신라와 고려 때는 허리띠 쪽에 찼던 것이 조선 시대에는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저고리 아랫부분으로 그 위치가 올라오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리개는 의상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어 단조로울 수 있는 의복을 치장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색은 홍·남·황 삼원색을 비롯해 자주, 보라, 옥색 등 열두 색에 이를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비녀는 여성 한복의 장식에서 빼놓을 수 없지요. 비녀는 기혼 여성들은 혼인을 올렸다는 증거로 착용했으며 정절과 품위의 표현이었습니다. 비녀의 길이나 재료도 색상이나 천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신분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상류층은 산호, 금, 은, 비취 등을 사용했으며 일반인들은 동이나 뿔, 나무 등을 사용했습니다. 비녀는 형태와 디자인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길이는 33cm~40cm로 커져 멋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왕비는 봉황의 형상을 한 비녀를 착용하여 봉황잠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녀는 사용된 재료에 따라 신분을 가늠할 수 있었으며 금이나 주옥은 상류층에게만 사용이 허락되었으며, 칠보나 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이전에 상류층 여성과 기생은 가체를 썼습니다. 가체는 여자의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거나 머리 모양을 꾸미기 위하여 머리에 얹거나 덧널는 띠 머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발을 쓰는 것은 유럽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체의 유행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가체 사치 때문에 가산의 탕진은 물론, 가체를 마련하지 못한 집에서는 혼례를 치르고도 시부모 보는 예를 행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이 어린 신부의 방에 시아버지가 들어오자 갑자기 일어나다 머리 무게에 눌러 목뼈가 부러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가체는 비싸기도 하지만 무게가 대단하여 목 디스크에 걸리는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영조 때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용하게 하는 가체 금지령을 내릴 정도 였다고 합니다.

족두리는 특별한 의식 때 부인들이 머리에 쓰는 관(冠)의 일종으로 화관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결혼식 때 신부가 머리에 쓰는 관인데 보통 검은 비단으로 만들어 6각형의 형태를 띠며 가운데 숨이 들어 있고



비녀 | 우리 전통 사회에서 혼인한 여인은 머리를 곱게 빗어 둥글게 쪽을 찼었다. 이렇게 다듬어 틀어 올린 머리를 풀어지지 않게 고정함과 더불어 훌륭한 장신구 역할을 한 것이 비녀이다. 여성이 비녀를 잃거나 빼면 정절이나 금지를 잃음을 상징했다.



엘리자베스 키스 | 엘리자베스 키스는 삼일 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말에 처음으로 왔다. 그 후 한국에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되어 한국을 대상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으며, 서양 화가로서 최초로 서울에서 1921년과 1934년 두 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열기까지 했다. 그의 판화에 등장하는 조선의 여인과 아이들이 머리에 조바위를 쓰고 있다. 해치와 광화문이 뒤로 보인다.

가운데를 비워서 엮어놓고 비녀를 질러 고정합니다. 족두리는 원래 몽골 여자들이 쓰는 모자 장식의 일종으로 원나라의 공주들이 고려로 오면서 착용해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족두리가 보편화 된 것은 앞서 말한 조선 중기 이후 가체 머리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원래 족두리 착용이 사대부 부녀자 사이에서만 가능했던 것에서 조선 중기부터는 서민들에게도 혼례식 때만은 족두리의 착용을 허용하여 여러 장식을 하여 혼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더해지는 것으로는 아얌과 조바위가 있습니다. 이는 추위를 막기 위해 부녀자들이 두르던 머리 장식으로서 일종의 방한모입니다. 두 종류 모두 위는 트이고 귀를 덮이도록 생겼으며 귀부분에는 털이 달려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머리장식이지만 아얌의 경우에는 귀를 덮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얌과 조바위는 구분 없이 쓰이다 조바위가 널리 퍼지면서 아얌은 급속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 방한용 모자의 일종으로 조바위는 조선 말기 양반층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지요. 근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유명한 영국의 여류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는 1920년대 서울 풍경이 조바위를 쓰고 있는 한국 여인의 모습과 같다고 쓴 바 있습니다. 조바위가 여성용 방한모라면 남바위는 보통 남자가 쓰던 방한모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오랜 역사적 발전 과정과 다양한 변화를 거쳐 오늘날 한복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웃 나라들이 이를 시샘하고 왜곡하여 자기 것이라 우기는 것은 아마 우리 문화 역량이 그만큼 크고 중요한 것이기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복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 나이 든 여인들이나 입는 옷으로 치부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사동이나 경복궁 등 고궁은 물론이고 전주 한옥마을 등 우리 문화와 역사가 관련된 곳이면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로소 우리 문화의 참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조짐인 동시에 기성세대들이 갖지 못한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가 젊은 세대로부터 피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 다닌다면 모를까 한복을 자기들 것이라 우기는 중국의 왜곡은 헛웃음만 짓게 할 따름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한승훈

용서받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사전 구속에 이어 수용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생활을 하며 결혼과 승진이라는 목표와 미래를 그려 나가던 저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이라는 달콤한 죄악이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 본전만 되찾으라는 마음에 헛된 희망을 계속해서 걸었고, 결국 제가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 대출금, 그리고 지인들에게 거짓말로 빌린 돈까지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공부했던 경제·금융 그리고 확률에 대한 지식은, '도박'이라는 죄악 속에서 돈을 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때 당시엔 무엇인가에 홀린 듯 그렇게 저 스스로 돈과 신뢰를 모두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바보 같은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분들께 물적, 심적 고통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평생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도박과 그로 인한 빚으로 인해 저의 일상을 스스로 무너뜨렸고, 회사생활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고, 친구들과 동료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첫걸음과 중간과정에서 제 흐릿했던 시야와 판단은 제 주변 모든 것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렸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빨리 알렸어야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박의 늪에 빠졌고 그 결과를 알리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 혹은 압박감과 함께 방법이 도박뿐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더 큰 피해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 더 빠르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당장 용서를 구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도박하며 거짓말과 빛이 늘어나는 순간순간, 확실히 표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었지만 정말 방법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더욱 빨리 깨달아야 했지만, 도박 때문에 빛이 생긴 것인데 도박으로 빛을 갚으려는 모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것을 그때는 왜 깨닫지 못했었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돈뿐만 아니라, 이미 흘러간 시간과 평생을 쌓아온, 하지만 지금은 미래성처럼 무너진 신뢰를 생각하면 지난 저의 잘못이 너무나 부끄럽고 피해자 분들께 그저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에게 이제 남은길은 저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눈 돌리지 않고 성실히 수용생활을 마친 후 피해를 보상해 가는 것입니다. 수용생활을 하면서 도박으로 인해 제가 더럽혀온 지난 길을 되돌아보고 잊었던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재정립하게 됨으로써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도박은 함께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을 더 깨끗하게 닦고, 유지하여 금전적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모두 용서받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작품평 : 사람에게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에 큰 시련이 서너 번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련을 잘 이겨내면 정신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좌절하면 갱생할 수 없을 겁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면 피해는 자기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지요. 빛이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마련이니까요. 형량을 내 인생에 필요한 보약 복용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늘 최선을 다하면 그 행동거지가 훗날에도 연장되지 않을까요.

역지사지(易地思之)



신원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정당하지 못한 일이었음을, 자신을 믿어 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잘못된 일이었음을 그리고 인륜지사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음을.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자기 합리화로 기만하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을 잊어버린 채, 안하무인격으로 뻔뻔히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 받는 것을 모면하려고 피해 다닌다 해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필귀정이고, 정의구현인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모든 죄를 인정하고, 특경법(사기)으로 현재 ○○교도소에 2년째 수감 중에 있는 저는 지금까지 복역한 시간보다 두 배 이상의 세월을 이곳에서 보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필자의 과오를 생각하며 조심스레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필자는 우연히 수용자 종합문예지 '새길'을 접하게 되었고 시(詩), 수필, 독후감, 수기, 서간문, 감상문 등의 글을 읽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용서의 글을 보는 순간,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할 수는 있는 것일까?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도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날 이후, '용서'에 관한 이런 저런 생각이 필자에게는 하루하루가 가혹한 형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필자를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충격과 아픔을 주었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고통을 겪게 만든 장본인이 지금에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감히, 인간으로서 할 도리인가? 하는 생각이 죄책감으로 저를 괴롭힌 것입니다. 가끔씩 피해자분들이 꿈에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또한 필자가 받아야 하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인(囚人)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제가 '이곳에서 용서를 구하려면 가장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저의 본분(本分)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고뇌하기 시작했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심의 여러 날을 보내던 중, 불현 듯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떠올랐고 필자로 인해 고통스런 현실 속에서 살고 계실 피해자 분들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고민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또한 수인으로서 속죄하는 길일 수도 그리고, 수인의 본분일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그 순간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이라는 생각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필자가 이곳에 있는 것이 피해자분들의 아픔과 분노를 대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는 일, 때 되면 입을 옷을 제공 받는 일이 떳떳하지 못한, 염치없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다른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래도 되는 것일까?'하는 생각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필자를 자문(自問)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성하고, 참회(懺悔)해야 하는 수인임에도 가끔씩 편한 것을 찾으려 하고, 갖가지 탐욕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필자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하고 불경을 외우듯 되뇌면서 필자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수인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용서(容恕)'라는 말의 의미가 '죄를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일'이라 합니다.

용서의 뜻을 알고 나서 더더욱 피해자분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추후도 용서를 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역지사지 하면서 맨 먼저 실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사람답게 사는 일, 그냥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바르게 사는 일, 그것부터가 저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고 여생(餘生)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지금!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남을 속이지 말고,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훗날 형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죽는 날까지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도 수인(囚人)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일 것입니다.

더불어, 필자에게는 ‘역지사지’ 후에 만든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합장한 뒤에 매일같이 세 가지 소원을 빌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 죄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둘, 저를 아는 모든 분들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세요.

셋, 오늘도 진실 되게, 바르게, 사람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용서’라는 말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하면 여전히 한 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필자는 현재 취사장에서 수인의 본분을 다하여 육체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여인동처(與人同處)면 불가자택편리(不可自擇便利)’ 타인과 더불어 같은 곳에서 함께 살면 편한 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말라는 현인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정신적 수양에도 최선을 다해서 용서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임을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작품평 : 상대방의 처지에 자신을 놓고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뜻을 그곳에서 심분 깨달았군요.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미리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범죄의 수는 반으로 줄어 들 것이고 그곳에서 지내는 분들도 반으로 줄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 욕심만 챙기지요. 과도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불러오고요.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진리를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남에게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박근형

화려하고 멋진 삶은 아닐지라도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던 저의 삶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지옥과도 같은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 퇴직금과 대출로 시작한 가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점점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직원들 급여는 밀리면 안 된다는 각오로 버티고 버텨보았지만, 결국 제게 돌아온 것은 폐업과 감당할 수 없는 대출금, 개인회생이라는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서 있던 제가 다시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힘들 때 제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믿고 도와준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새벽 택배, 음식점 서빙 등 최소한의 휴식만을 취하여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 많은 빛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끝날 거라는 생각에 무리인 줄 알면서도 일을 더 늘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던 일로 인하여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일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짧은 시간 대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신중하였다면 보이스피싱이라 파악할 수 있었던 허실 가득한 꼬드김이었지만 힘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던 욕심에 눈과 귀가 멀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을 포함하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말았으면 하는 근심과 걱정, 근거 없는 억울함, 곧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을 향한 원망, 사회에 대한 분노 등이 순차적으로 제 감정을 지배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구속기간이 길어지고 많은 것들을 체념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차분히 지나온 시간과 과거의 행동들을 되짚어 볼 여유를 가진 후에야 제가 놓치고 있었던 아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하여 피해를 본 분들과 그 가족분들’

저의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으로 비롯된 그분들의 고통과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아픔의 시간을 간과한 채 제 손끝에 박힌 조그만 가시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핑계 삼아 정녕 가슴에 대못 박힌 분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홀로 칭얼대고 있었구나.

갖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가진 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부끄러움을 뒤로한 채 매일 저녁 잠들기 전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춥고 암울한 겨울 날씨 한가운데 땅 밑에서는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발버둥 치고 있는 씨앗들이 있듯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씨앗들은 계속 자라고 있음을 잊지 않고 언젠가 맞이할 희망의 싹을 싹틔우기 위해 지금의 힘겨운 현실과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버티고 버티 마침내 뚫고 나가 그분들께서 찬란한 인생을 맞이하기를...

하루종일 몸을 움직이면 1미터 갈 수 있는 애벌레가 죽기 전에 10킬로미터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몸을 꿈틀거리게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매몰되어 꿈틀거리지 않고 불필요한 껍질을 모두 벗어버리고 진정한 변신을 위해 집중하는 시기가 되기를...

지금의 거칠고 가파른 운명의 자갈길을 견디고 견뎌내다 보면 어느 순간 잘 다져진 행복의 오솔길에 다다랐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지켜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를...

세상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듯이 그분들께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의 마지막 장을 넘겨 희망찬 인생의 새 페이지를 맞이하게 되기를...

용서를 구합니다

그분들께서 힘듦과 고달픔을 잘 견뎌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흘러가는 시간이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밧줄의 끝자락을 잡고 매달려 있을 그분들께서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할 힘을 주기를... 그럼으로써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 일말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기를...

물론 이런 저의 반성과 기도로 하여금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고통 속에 담긴 절망과 분노를 삭일 어떠한 방법도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등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무마할 수 없는 죄라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난 날을 반성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가슴으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사죄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기에 이렇게 반성의 글을 적고 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니 알 수 있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느낀 아픔을 알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기에 진정한 사과는 용서를 구하는 것을 쉽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 역시 아직까지 그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마 평생토록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저는 매 순간 지난날을 반성하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께 사죄하며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저의 하루를 통해 피해를 본 분들의 하루가, 혹은 단 일 초라도 행복할 수 있기를, 언젠가는 저의 진심이 그분들에게 닿을 수 있게 되기를, 언젠가는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 희망찬 미래로 한걸음 나아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빌어 봅니다.

작품평 : 나의 행복을 남의 불행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고도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면 그건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으면 과연 소화가 될까요? 풍돈을 벌어도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밥을 사 먹어야 살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있으니 천만다행입니다. 빚을 갚으려고 노력만 해도 피해자들이 용서할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용서를 구합니다



강려화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가지려 눈을 감아보지만, 아직은 명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방법을 잘 몰라서인지 눈을 감고 있으면, 두서없는 생각들이 마구잡이로 떠올라 마음이 더 심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힘들었던 순간들과 허무하게 놓쳐버린 괜찮았던 시간들 그러다가도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까지 1시간 가까이 어지럽고 복잡한 생각과 마음의 갈등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깊게 숨 한번 크게 쉬고 나서야 이불 속으로 빠져나와 찬물로 씻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절대 쉽지 않은 하루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잘못을 저지르고 실형 7년 선고받고, 현재 1년5개월 넘게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구치소 강려화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11월 말경에 한국에 온 외국인(중국인)입니다.

저는 저로 인해 큰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께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에도 수감되고 난 후에도 이번 사건이 잘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많은 걱정과 바램은 그저 생각에 그칠 뿐이었지요.

시간이 멈추면 비로소 많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염치없게도 저는 이곳에 들어와 건강은 무너지고 약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용서를 구합니다

있었고 심지어는 형을 많이 받아 견딜 수 없다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명청하고 뻔뻔스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6세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떡하든 살려보겠다 애쓰셨던 아버지께서는 병원비 때문에 많은 빚을 지셨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돈을 벌어 빚을 갚아야 했던 아버지는 저를 할머니께 맡기고 고향을 떠나셨지요. 공부 성적이 꽤 우수했던 저는 철도 빨리 들어 키울 때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서 연로하신 할머니께선 역장이 무너지고 자신이 잘못 키워서라며 자책하시면서 매일 우신다 합니다.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던 할머니께서 올해 여든일곱,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병원 입원을 여러번 반복하셨고 작년에는 대상포진 때문에 많이 아프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수감되고 나서 제일 두려웠던 것은 어쩌면 ○○에 계신 우리 할머니를 생전에 못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소하여 바로 추방 몇 년 동안은 한국 입국 못 할꺼라 합니다. 아직은 7년 선고 받은 것을 모르는 할머니. 1년5개월 간혀 있으면서 단 3분밖에 통화 못하였는데 어린아이처럼 평평 우시면서 어떡하든 제가 나갈 때까지 꼭 버티겠다 하시는데 대체 나란 사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너무 후회되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제가 수감되기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하셨고 지금도 정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 오로지 돈을 많이, 빨리 벌어서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급하였고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는 외면하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저는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구치소에 수감되던 날 거실문이 '탁'하고 잠기던 순간 저는 덜컥 겁이나고 두렵고 무서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보낸 인터넷 서신을 받고 너무 속상하고 슬펐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저한테 관심이 부족하여 이렇게 된 거라며, 잘못을 한 저보다도 오히려 가족들이 반성하며 저한테 미안하다 하더군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밋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큼에 마음의 여유가 조금은 생기고 적당히 적응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다가도 답답함에 견딜 수가 없이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치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도 울컥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참지 못해 실신할 것 같이 통곡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 내가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아무리 울어도, 괴로움에 몸부림을 쳐도 지금에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내 생각, 내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으면 남은 세월을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럭저럭 참고 또 참으며 흘러가 보는 중입니다.

과거에 한없이 경솔했던 행동들로 인해 지금은 이런 몰골이 된 자신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인생의 시계추가 고통과 시련의 방향으로 향해가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먹고 각오하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사고'를 친건 자신이기에 그에 따르는 모든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당연히 자신이어야겠지요.

무너진 건강과 마음을 추스르고 보니, 많은 밤을 잠 못자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가족들 가슴 찢어가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지만, 이대로 쓰러지지 않으려 이 악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 대체 제가 피해자분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속상한 마음 가득합니다.

밖이건, 여기 안이건,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지나가고 있으니, 시간이 약이라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 아픔과 고통스런 마음 깨끗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버텨 가시기 바랍니다. 벌을 받고 나가서도 피해자분의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마음을 차분히 하며 매일 피해자분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작품평 : 중국인이 미국의 교도소에서 벌을 받고 있네요. 7년 중 1년 반을 사셨다니 아직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를 여섯 살 때 하늘나라로 보내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할머니한테 정말 잘해 드려야 합니다. 할머니 연세 올해 여든일곱이니 출소할 때까지 살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곳곳이, 몸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최대의 보은이 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두정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로 인해서 작년 2월 체포된 후에 2년 2월의 형을 집행받고 현재 ○○구치소에서 이송대기자로 분류되어 수감되어 있는 두정근이라고 합니다.

저로 인해 많은 피해자분들과 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드렸고, 이곳에 갇힌 후에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고, 주위 모든 분들께 면목 없는 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주위분들에게 크나큰 잘못을 드리고 아픔을 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아내를 그리워하고 안타까워 하고 있을 제 6살난 딸 ○○이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 딸 ○○이는 2017년 9월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같은해 3월에 저희부부가 결혼한 후에 태어났습니다.

먼저 저희부부가 결혼하기전에 선물처럼 다가온 제 딸은 태어나고 아빠인 제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18개월간 저와 함께 했고, 그때까지만해도 딸 아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후에 2년여의 시간을 범죄와 헛되이 중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보내게 되고,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결국 저는 입국 후 3주만에 체포가 되고 지금의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아버지를 따르고 좋아했던 딸 아이는 해준 것 하나없이도 아빠인 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중국에 있는동안 어찌보면 아버를 잊을만도한데 항상 딸이 좋아하는 토끼를 잡기위해 멀리 와 있다고 얘기하면 그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꺽충꺽충 뛰며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코로나와 제 범죄로 인해서 3살이던 아이는 5살이 되어서야 다시 제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8개월 3살이던 딸아이는 어느새 5살로 훌쩍 자라버렸고, 그동안 아버의 품이 그리웠을 아이는 제가 다시 돌아온 그 날 밤에 침대에 누워있는 제 등을 때리며 “나 아버 때릴줄 알아”, “아빠는 매일 거짓말만 해”라고 얘기하며 1시간을 울며 저와 아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많이 가슴에 슬픔과 아픔을 담고 있었을지, 제가 지금껏 무슨 짓을 저지르고 살아온 것인지 온갖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실은 입국하기 전부터 공범들이 하나 둘씩 체포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정신적 지주였던 장모님마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제 자신 또한 체포가 될 것을 알고 입국을 했고 다행인지 코로나 때문에 공항에서 긴급체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딸 아이가 진정이 되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체포가 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격리가 끝나고 저는 바로 체포가 되었고 또다시 딸아이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체포가 된 후 유치장에 면회를 온 아내는 딸 아이가 애타게 아버를 찾고 있고, 매일 울면서 아버가 돌아오기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짓을 하고 있는것인지 저를 보며 오열을 했습니다.

유치장에서 사복을 입고 구치소로 가기전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상통화를 다음날 신청할테니 딸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유치장 화상접견으로 딸 아이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고 서글프게 우는 딸 아이에게 “아빠가 ○○이가 좋아하는 토끼 잡으려고 잠깐 멀리 왔으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아버 기다릴수

용서를 구합니다

있지?”라고 얘기하니 울음을 그치고 꼬덕이는 딸 아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벌써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아직 앞으로 이 곳에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남아있지만, 딸 아이는 지금까지 절대 아با인저의 존재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아바가 돌아오지 않기에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비록 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딸 아이와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저를 애타게 기다리며 가슴 아파하고 속으로 견디고 있을 딸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남은 수용생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잘못은 제 자신 혼자만의 몫인데, 아픔과 고통은 제 딸 아이가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준적도 없고, 지금 당장 해줄수 있는 것도 없는 아바이지만,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바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딸 ○○이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 아바가 ○○이 어릴적이 무엇이 소중한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어. 이제 앞으로 조금의 시간을 견디면 우리 ○○이 좋아하는 토끼 인형 사들고 ○○이에게 갈 수 있을거야. ○○이가 아바 많이 밋고 서운한거 알고 있어, 그 서운함과 섭섭함을 아바가 평생 가슴에 안고 다시는 ○○이 곁을 떠나지 않고, 평생 함께 놀 수 있게 노력할게

사랑해 아바보물 ○○아.

작품평 :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다가 바로 체포되었다니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하늘이 준 보배인 딸 ○○이가 “아빠는 매일 거짓말만 해”라고 말하면서 등을 때리고 울었다니 그 누구보다 딸에게 잘못하셨습니다. 2년 2개월 형을 받았으니 이제 출소일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남은 수용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후로는 딸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아바가 되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빌면서



정용호

커다란 충격과 공포속에서 시작된 경찰서 유치장부터의 구금생활도 9월초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접어들면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어찌 살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혼란된 심증으로 수용생활을 해오면서 하루하루가 희망이 없는 절망속에서 밥을 먹고 싶지도 않아서 밥을 굶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밥도 잘 먹으면서 고행의 수행길을 한발한발 내딛으면서 '희망을 잃지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 고통이 따르더라도 참고 견디며 살아보자' 라고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며 생활해온지도 육개월, 일년도 안되지만 주마간산이라고 달리는 말위에서 느끼며 지나가는 산이 아니라 열차타고 지나가는 세월처럼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누우치면서 미래에 대한 장밋빛을 생각하면서 가족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과 사랑과 신뢰속에 하루하루를 마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나온 과거를 털어버리고 내 마음의 보석상자속에 새로움의 창조불을 가식이 아니 오직 진심과 진리를 채워 넣기 위함이 아닐까...

덧없이 흐르는 황혼의 세월속에 더 깊은 곳으로 스며 들어가 이마에 생기는 주름살은 깊게 패이고 숫자는 더욱더 늘어가겠지만 세파에 찌들어서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쁜척 세월만 죽이면서 살아온 지난 날 한권의 책도 읽지않아 일용할 양식이 없는 빈 공간처럼 텅빈 머릿속에 채워넣는 독서를 하면서 내 마음의 양식을 채워넣어 늘어나는 것은 나만의 위안이요, 나만의 희열입니다.

사상누각이 아닌 단단한 암반위에 놓여지는 초석이 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짧지않은 인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따져 봅니다.

회한에 잠겨서 눈을 감고서 아무잡념없이 조용하게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용서를 빌면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철창문속 조그마한 방에서 나혼자 이른 새벽에 일어나 목상을 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크게 잘못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되고 지금까지 오로지 한결같이 공학도로서 배우고 익히고 40여년간 엔지니어로서 한길만을 걸어왔으면서 하는일이 잠시 풀리지 않아 생활이 궁핍해지고 힘들다고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범죄의 길, 고액알바하겠느냐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이라는 엄청난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자랑스런 아버지면 자랑스런 아들이며 자랑스런 형, 오빠라는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함은 자존심이 강한 나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수치인 것은 나로서는 인정하기 싫고 힘들지만 현실을 인정 할 수밖에 없는 작금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잘나가는 엔지니어이었던 아무리 잘나가는 사업가이었던 “과거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라는 미명아래 이곳 수용소 수도원에서 몸과 마음을 모두 비우려 합니다. 모두 비웠습니다.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는 고통, 분노, 원망, 절망, 슬픔, 모든 응어리를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이지만 인생의 성취를 위하여 더럽고 지저분한 진흙탕속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이 되려 합니다. 늦가을 찬서리, 찬바람이 불어와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향기를 뽐어내는 고운 국화꽃이 되려 합니다. 집착과 욕망, 헛된 망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아닌 그리워해주고 아쉬움에 눈물 흘리며 인생을 잘 살고 간것이라고 칭찬 받으며 박수쳐주는 그런 인생이 되려 이곳의 수용소 수도원에서 잉태되어서 순수함과 겸양을 갖추고 “역지사지” 마음의 완전무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맹세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고 고통 겪으시는 모든분께 머리숙여 진심, 진정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기를, 상처가 치유되기를 고통이 치유되기를 그리고 가내 평안과 건강하시기를 비읍니다.

작품평 : 젊은 날에는 공학도로서, 가장이 된 후로는 엔지니어로 살아온 옹호 님이 어떻게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감언이설로 남을 속여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내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아들, 아빠, 형, 오빠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로 형을 살고 있으니 눈앞이 캄캄하겠지만 인생에 서광이 비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행동으로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모두가 출감시에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경섭

저는 1972년 11월 19일에 부모님으로부터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다섯)살 때에 교통사고로 우측 팔을 다치게 되었으며 고등학교까지 나오면서 20세에 직업훈련에서 3개월 동안 봉제공과에 있으면서 나중에 부산에 있는 ○○실업에 있는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서 10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곳에 계시는 상사와 다투고 사직서 써내고 나오다보니 오도가도 없어 나중에는 노숙을 하게 되면서 부모 형제들과 연락이 끊긴지가 2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숙을 하면서도 혼자 살다보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고 나중엔 전과가 11범이나 되어 교도소에서 20년이 넘도록 살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도 어렵고, 어릴 적 교통사고로 우측 팔을 다쳐서 어디가도 일을 못하다보니 도둑질을 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군요. 그러나 이런 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정말 죽고 싶고 목 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할지 모르겠고, 방황과 자포자기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다 보니 죽고 싶을 정도이고, 나이 50세에 삶을 어찌 살아야할지 모르겠고 삶을 포기할까도 여러 번 생각하였답니다.

저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삶을 살아가도 내 주위엔 아무도 없다는 생각들이 들다보니까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당뇨 합병증과 정신적 우울증이 있고, 기질성 인격 장애 및 분노장애가 있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올 때마다 반성과 후회도 많이 많이 하였고,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올 때마다 죄의 죄책감으로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보니까 세상이 날 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고통을 안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도 생각도 해보았으나, 정말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이제껏 종교를 안믿어오다가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제가 믿고 싶어 하는 종교를 믿으면서 삶을 살아갈까하는데, 남은 삶을 종교를 믿으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삶을 살아, 남의 물건에 손 안대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나쁜 짓거리를 안 하고 삶을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도벽이 있다 보니 자꾸자꾸만 이런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고, 어찌해야만 이런 교도소에 안 들어오고 살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로서는 생각이 안나 어찌해야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죄를 짓고 다니다보면 늙어서도 죄를 짓고 다닐 텐데, 저로서는 어찌해야만 할지 모르고 있고, 남은 삶을 착실하게 살아야만 해야 하는데 도대체 아무런 방법이 없군요.

나의 삶은 정말로 비참하고 조용히 눈을 감아버렸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이 어려운 고통 속에 희망이 없어 미칠 것만 같아요. 어차피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거면 죄를 안 짓고 도벽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만 도둑질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도 생각하였지만 제 머릿속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나 저는 1년 후에는 갈 데도 없고 잠잘 곳과 먹을 것이 없고 또한 건강상 당뇨 합병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가면서 이런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려고 생각하려니까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측 팔 장애로 무슨 일도 못하고 경제가 어렵다보니 자꾸자꾸만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후회와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에 1년 후에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면서 살아가겠고, 이제는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고 하느님과 약속하면서 새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작품평 : 참으로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섯 살 때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을 다쳐 취업이 쉽지 않아서인지 주로 절도죄로 전과가 11범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 기질적 성격장애에 분노장애까지 있으니 전퇴양난의 상황이군요. 하지만 지금 세상에 나이 오십은 청춘입니다. 몸의 병은 투약과 습생으로 잘 다스리고 마음의 병은 종교에 귀의하면 좋아집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도울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빨리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신재원

저는 17살이라는 어린나이에 ‘특수중감금치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녁 6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집으로 갑자기 찾아온 형사들에게 잡혀가는 저를 지켜보시던 부모님은 눈물을 머금고 있으셨습니다.

그걸 본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2시간동안 조사를 받을 때도 부모님은 저의 두 손을 꼭 붙잡으시며 옆에 있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교도소에 수감이 되기 전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삼일 째 되던 날, 저는 영장실질심사를 하였고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면회를 오신 부모님은 제가 구속이 된 사실을 알고있으시면서도 저의 눈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엄청 울다보니 면회 시간이 지나가서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피해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저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교도소로 이송가기 전 날 면회 오신 부모님이 말씀해주었습니다.

“반성을 하고, 항상 솔직해지고, 이미 지나간 건 되돌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잘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피해자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생각없이 행동한 저를 원망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난생처음 경험하는 교도소라는 곳에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큰 문이 열리는 것을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처음 들어와 독방에서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격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피해자는 저 때문에 춥고, 어두운 곳에서 감금이 되어 이유없이 저에게 욕을 먹고 맞았다는 걸 생각해보니, 정말 17살이라는 어린 제가 할 짓이 아닌 걸 진심으로 느꼈으며 제가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또 반성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벌을 받고 언젠가는 출소를 할 것이지만 피해자들은 지난 상처로 인해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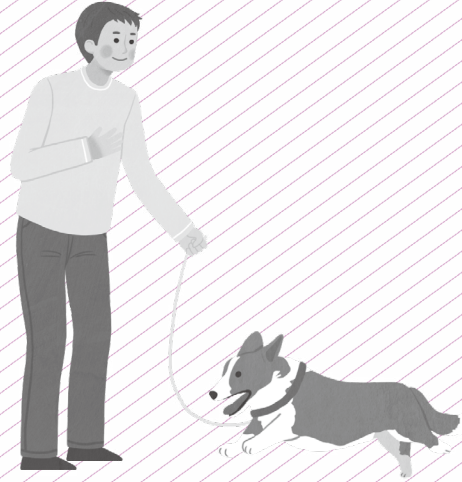
‘새길’이라는 책에 저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매일매일 속죄의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같은 마음으로 믿고 있으신 부모님에게 하루빨리 출소하여 효도하고 싶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 글을 읽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후회와 반성하고 있는 저를 염치없지만 용서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품평 : 열일곱 나이면 미성년인데 형을 살게 되었으니 큰 잘못을 했나 봅니다, 피해자가 춥고 어두운 곳에서 감금이 되어 욕을 먹고 맞기까지 했으니 공포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인생 최악의 실수는 그 행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앞날을 잘 설계하면 됩니다. 저도 장기간 무단결석으로 고등학교를 퇴학당해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간 전력이 있습니다. 인생 제2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용서를 구합니다



윤영대

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윤영대라고 합니다.

저는 45세에 조개양식, 채취업을 하려고 배를 사서 첫 조업을 나간 날 저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 오른쪽 다리 무릎 밑 부분을 절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힘든 마음을 다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하여 5살 딸과 2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아버로서의 모습으로 자리 잡으려 했던 사업이 평생 장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일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들을 엄마에게 맡기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없어진 다리의 아픔이 찾아 올 때마다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고 죄를 범해 교도소에 들어오고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4년 전 누나에게 딸이 결혼을 할 나인데 결혼식에서 딸 손잡고 들어가는 건 아버로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3년여를 마약을 끊고 지내며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는 지인과 만나 다시 마약을 하게 되었고 후회를 했지만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며 많은 나이인 저를 믿어주시고 의지하시는 누님과 제가 돌보지 못한 딸과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누나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용서를 구합니다

주셨습니다. 확실한 돈벌이가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고향 ○○에서 김 양식장에 필요한 영양제를 납품하는 일을 해 보라며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늦었지만 그 사업을 하면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 누나의 도움을 제 자신의 안일하고 약한 의지력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누나의 그 마음을 받지도 못한 저를 아직도 걱정하고 계시는 누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쁜 딸과 듬직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정을 받지도 못하고 자라온 딸은 ○○대 미대를 졸업하고 자기의 꿈이었던 미용실 실장으로 취직을 하여 자기 꿈을 차곡차곡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제대로 못해주고 제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딸과 아들에게 듬직한 아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나면 딸과 아들에게 지금까지 아버로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려고 합니다. 한 번도 자상하게 대하지 못했고 웃으면서 이름을 불러 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땀에 젖은 옷을 입고서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지나 온 세월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 설 것입니다. 나의 그늘이 되어주는 튼튼한 느티나무 같은 누나와 밝고 이쁜 딸과 듬직한 아들에게 이제는 듬직한 동생과 열정적이며 웃는 아버로서 남은 시간을 살아 갈 것이라고 이야기 해 주고 싶습니다.

누나!!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쁜 딸! 아들! 아빠가 사랑한다. 함~안아보자. 항상 응원한다.

작품평 : 첫 조업에 나간 날 사고로 오른쪽 다리 무릎 밑 부분을 절단하게 되었으니 그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없어진 다리의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마약을 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후천적 장애인은 다 마약을 하나요? 의지가 약한 소치이니 이제는 의지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말이 멋집니다. 그 말대로 살아가는 동생을 누나가, 아버지를 두 자식이 신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유은석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현재 ○○교도소에서 1년이 넘게 코로나 전담청소로 일하는 수형자입니다. 제 부모님 중에 특히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자 이렇게 미력하게나마 글을 써 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94년도 1월 말에 저를 낳아 아버지없는 자식소리 안듣게 하고 자 억척스럽게 사시던 분입니다.

친아버지는 도박으로 인해 통장과 도장을 다 챙겨들고 나가 그후 소식이 없었고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절망할 틈이 없이 열심히 저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란 사람은 머리가 커 갈수록 불만도 많고 이해도 안됐으며 오히려 대들거나 따지고 화를 냈습니다. “왜 내마음대로 못하게 하냐고” 정말 철없는 행동과 언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범죄라는걸 호기심에 하게되고 돈도 쉽게 벌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유흥비, 생활비 명목으로 자기합리화 해가며 부모님 눈에 피눈물 흐르는걸 모른 채 못 본척 했습니다.

그렇게 옥살이를 들락거리며 자연스럽게 부모님과도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어언 7년여 동안 부모님과도 통화 한번도 안하며 소식도 모른 채 찾아 볼 생각조차 안한 뒤 나중에 나중에 성공하면 뭐든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나이를 한해 한 살씩 먹고 나서야 제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7년여 다시 돌리기엔 너무 늦은걸 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 왔던 길을 다시 돌아 가고자 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억척스럽지만 나에겐 한 없이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니...

당신의 희생으로 자란 아들이 너무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돌아 가고자 하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꽃다운 세월을 희생해가며 키워온 아들이 늦게나마 눈물로 지새우며 당신을 그리워 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 만큼 어머니를 그리워 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세월로 열심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따스한 품이 그리워지며 제 마음속 사시사철 맑음 없이 비만 내립니다.

당신의 품에 안겨야 만 제 마음속은 맑음이 되겠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용서의 글을 올려 봅니다.

작품평 : 그대의 글을 읽는 동안 마구마구 화가 났습니다. 도박에 미쳐 통장과 도장을 다 들고 나간 친아버지가 아내와 아들을 버렸다면, 어머니 혼자 갖은 고생을 하며 그대를 키웠다면, 효도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7년 동안 집에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효도할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니 지금부터라도 매사 성실히 해보십시오. 자동차정비나 유통업체 일은 지금도 인력난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대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일 것입니다.

“용서의 글”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럭키슈퍼

송태은

농담은 껌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전봇대 아래 버려진 홍시를 까마귀가 쪼아 먹네요.

나는 럭키슈퍼 평상에 앉아 풍선껌 씹으면서
나뭇가지에 맺힌 열매를 세서 보는데
원래 낙과가 맛있습디다.

사과 한 알에도 세계가 있겠지요.
풍선껌을 세계만큼 크게 붙여 뵙니다.
그러다 터지면 서둘러 입속에 훑쳐 넣습니다.
세계의 단물이 거의 다 빠졌습디다.

슈퍼사장님 딸은 중학교 동창이고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닙니다.
대기업 맛은 저도 좀 아는데요.
우리 집도 그 회사가 만든 감미료를 씹니다.

대기업은 농담 맛을 좀 압니까?
농담은 슈퍼에서도 팔지 않습니다.

여름이 다시오면
자두를 먹고 자두 씨를 심을 거예요.
나는 껌질째 삼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 소화되거든요.

미래는 혈령한 양말처럼 자주 벗겨지지만
맨발이면 어떻습니까?
매일 걷는 골목을 걸어도 여행자가 된 기분인데요.
아차차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는데요.

바람이 불고 머리위에서 열매가 쏟아집니다.
이게 다 씨앗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씹던 껌을 종이로 감싸도 새것은 되지 않습니다.

자판기 아래 동전처럼 납작해지겠지요.
그렇다고 땅 파면 나오겠습니까?
나는 행운을 껌질째 가져다줍니다.

작품평: 럭키 슈퍼 평상에 앉아 풍선껌 씹는 모습이 유쾌합니다. 농담이 껌질째 먹는 과일이라는 것, 풍선껌의 단맛이 세계의 단물이라는 것, 낙과가 맛있다는 표현들이 좋습니다. 행운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하는 시편. 독자에게 상상을 하게 하는 시. 자주 벗겨지는 양말 같은 미래, 그러나 맨발이면 어떠한 성찰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집 으 로 가 는 길

김야마

자그마한 마을을 지나
 외딴길 오르다 재 넘어
 사람들은 행여나
 무섭지나 힘들지나 앓느냐고 묻지만
 철마다 피는 야생화
 그 길 끝에 우리집 있어
 세상 그 어느 길 보다
 아름답고 편안한 길
 우리집 가는 길이다.

텃밭 채소 자라나면
 반가운 손님 찾아오고
 감 익어 가을 붉어지면
 억새꽃 바람에 피고
 흰 눈 내리면 보드득
 사랑이 짝하고
 밤하늘 별빛 담아
 아늑한 그곳 우리집 있어
 그 길은 우리집 가는 길이다.

두릅나무에 새순 오르면
 두릅순 따구
 취나물 뜯고 고사리 꺾어
 가족나무순 옷나무순 엄나무순
 향긋나는 식탁위에
 행복꽃 웃음 짓는
 때때 오디 따먹구
 청설모 마냥 호두알 चु는
 우리집 가는 길이다.

이 밤 편히 누워
 서둘러 꿈길 찾아 가는 길은
 희망 품은 가슴에
 아름다운 내일이 있어
 가슴 벅찬
 행복의 길이다.
 집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을 걸으며 걸으며
 내일의 밝은 빛을 딛는다.

작품평 : 이 시만 따라가면 자연이 베풀어주는 모든 것을 지나 집에 닿을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저렇게 풍성하다면 가는 길 위에서 우린 이미 행복할 것입니다. 멀고 외딴곳에 있어 외로울 것 같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만이지요. 낮익은 풍경 속으로 향해 가는 집,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는 길. 꿈길이어도 잊을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최백호의 노래

이
시
에

낭만 인생 젊은 그리고 사람
소름끼치는 고음도
화려한 테크닉도 없지만

한 줄 한줄 써내려가는 목소리에
존재마저 잊고 지낸
마음 언저리 풍경(飜經) 하나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흔해 빠진 노랫말
지루함마저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래서
동(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흔하고 평범해서
0.0025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에도 가려지고 마는
그 행복들

우리 내 삶
다 거기서 거기다 믿고 살아
왔건만
그건 또 아닌가 봅니다.

나는 또 바보처럼
읽고서야 소중한을 알게 된
아주 작고 소소한 기적들.
어쩌면 그는
소리 죽여 울부짖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그것은
늘
우리 곁에
숨죽이고 있다고 말이죠.



작품평: 한 가수의 노래로 흔들리는 삶에 대한 정서가 웬지 정겹습니다. 우리도 흔한 노랫말 속의 주인공들이기도 하니까요. 행복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늦게 알아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 하니 우리가 불행한 건 너무 멀리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주는 시입니다.





나무는 곱으면서 시(詩)를 쓴다

508쪽

저 나무는 그리울까?
그리움 한가득한 듯 비위를 안고 있다

저 나무는 혼자 가슴을 앓는가?
짜사랑 짙은 듯 한쪽으로 온통 기울었다.

저 나무는 탈춤을 추는가?
흐드러져 몸 트는 모양이 천상 춤사위다

나무는 곱으면서 시(詩)를 쓴다.
외로우면 외로운 방향으로
그리울 땐 그리운 방향으로
그 슬픔과 그 마음의 방향으로
나무는 시(詩)를 쓰고 고백한다.

나는 그리움일까?
아픔일까.
나는 소나무의 씨(詩)처럼 고고할까?

나의 시는 지금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무로 서고 싶다
나무의 시(詩)가 되어...

작품평 : 곧은 나무가 일찍 베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몸을 휘어가며 자라는 이유가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외롭고, 그리고, 슬픈 쪽을 향해 자라는 나무의 시. 그리움 한가득인 듯 바위를 안고 있다는 묘사가 좋습니다. 우리 모두 바위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에 이 시에 공감하게 됩니다.



진우
예식장

박정주

어둠이 내리면 사막은 빛을 낸다고 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오래되고도 오래된
 수수께끼인 거예요

토요일이면 예식장에서 울려 퍼진 교향곡은
 누가 작곡한 건지 알 수 없는
 나에게는 수수께끼입니다

예식장에 가려면
 준세네 옷 가게를 지나서
 세 살 때 하늘나라로 간
 경진이네 설렁탕집을 지나가요

나보고 엄마라고 말하던
 눈 큰 경진이
 엄마밖에 몰랐던 경진이가 생각나
 잠깐 멈추니
 은행나무에서 매미가 우네요

참, 나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요
 오색(五色)의 신발이 진열된
 좌판을 지나

대리석으로 빛나는 예식장이 나오면
 진우를 불러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물어보려 해요

그런데 진우는 없어요
 진우는 이름뿐 이래요
 예식장은 있는데 진우는 없어요

무엇 때문에 사막이 빛을 내지?
 지난 주 들었던 교향곡은 무엇이지?

진우예식장으로 들어서는
 대리석 계단 틈으로 명아주풀이
 자라났어요
 딱딱한 돌뿐인데 말이예요

수수께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건 괜찮아요
 내일 다시 흩어진 수수께끼를 풀러
 예식장에 올 수 있으니까요
 여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작품명: 시란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빛이 나는 사막의 이유를 찾아봅니다. 이웃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이 시에서 삶의 비애를 느껴봅니다. 시인이 다 말하지 못한 곳에 독자의 상상력을 넣어보게 하는 불편함도 시의 매력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장소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 평화시장에 평화가 없다면 어느 시 한 구절이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자 격

조경화

살이 에이는 매서운 찬바람
얼지도 녹지도 않는 온도
그런 겨울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아지랑이 아득한 봄날의
따스한 입김을
그리워할 자격이 없다.

곰지 않게 시들어
손만 대어도 아니 후 불면
먼지로 흩어질 꽃의 시들을
곁에서 지켜볼 사람만이
봄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
즐기 가는 꽃대 끝에 매달린
꽃송이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쉽게 찾아진 이유는 변명이 되고
서둘러 찾아온 결과도 끝은 아니리
미련하게 붙들고 살아온 내 삶의 씨실줄기
움킨 내손아귀에 힘이 빠지면
죽을듯 싶다가도
오늘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고
아무 이유 없이 펑펑 울고 싶다.

반백년 그렇게 무심하게 무수히 찾아온 아침과
그렇게 무심히 떠난 새벽 별들을 불러
묻고 싶다



그래 너희가 보았던
나는 어떻게?
물론 답이야 있겠나마는

나는 오늘도 피울음 베어 문
승천 길 막힌 이무기가 되어
아득한 이곳을 배회한다.

눈에 뜨겁게 고이는 눈물 위로
사랑하는 이의 뒷모습을 가뉘보지 못한 사람은
활짝 웃으며 다가오는 그님의 이마에
입 맞추지 마라!
보내는 나야 울고 끝났지만
떠나는 그님의 심정이야 천갈래 만갈래

봄이야 죽지만 앓으면
내년에 또 보고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꽃은 향기 그대로 피련마는

탈탈 털어도 털리지 않는
이 모진 기억의 끝은
어데쯤 표가 되어 있을려나
참 견디기 힘든 내 나이 오십둘의
참 견디기 어려운 찬바람 일세

작품평: 봄을 노래할 수 있는 건 겨울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고통 뒤에 보람과 환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피고 반성하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봄은 새봄으로 자꾸 오겠지만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무엇이든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스스로 준비하는 일인가 봅니다.



물파스 향기

이상구

동치미 무에서
물파스 향기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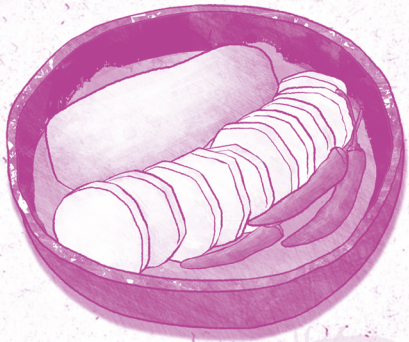
농부 아저씨가
물파스를 바르고
수확을 하셨을까.

아니면 엄마가
물파스를 바르고
동치미를 담그셨을까.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시며
새 남방을 선물한
이모도 물파스를 바르셨을까.

새 남방을 입고
동치미를 마시다 보니
시원한 동치미국 내음 대신
그들의 물파스 향기만 난다.

작품평: 시원한 겨울 동치미 무에서 왜 물파스 향기가 나는지 자꾸만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시원하고 환하게 몸을 자극하는 맛과 향기였을까요.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든 이의 사랑도 시원하고 알싸한 향기를 가진 모양입니다. 누군가 내게 건넨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의 향기가 베어있나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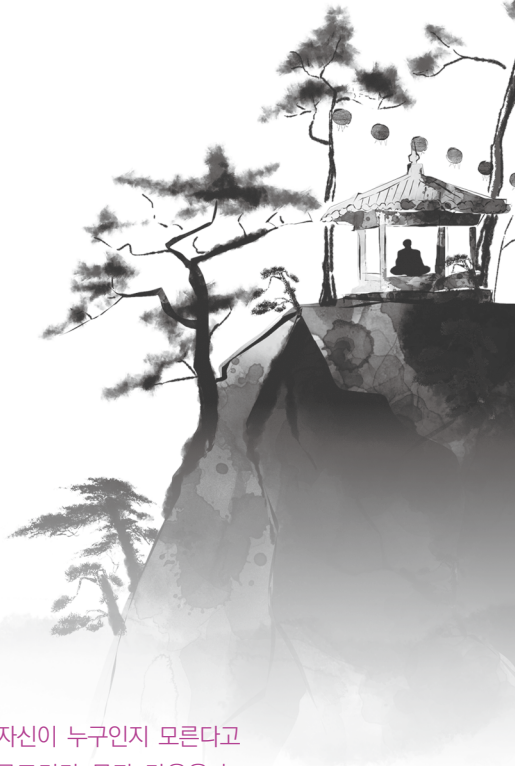


산
길
은
암
자
처
마
끝

조성철

산 깊은 암자 처마 끝
정진중인 물고기
일생을 바람과 벗하며
허공 한 켠 지분 얻어
홀로 고독경을 풀어낸다.
베일 듯 팽팽한 공간
천형의 울가미에
죽어도 죽지 못하는 몸으로
평생 고독경을 읊는다.
바람소리가 난다.
아니 고독경 소리가 난다.

작품평: 외로워 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가 몸과 마음을 늘 열어놓듯, 깨어있어야 하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풍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고독을 지켜내고 있는 풍경. 바람이 유일한 벗인 풍경에게 허공에 지분이 있다는 시선이 재미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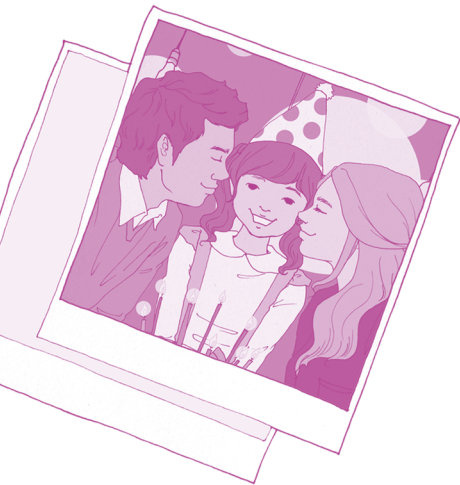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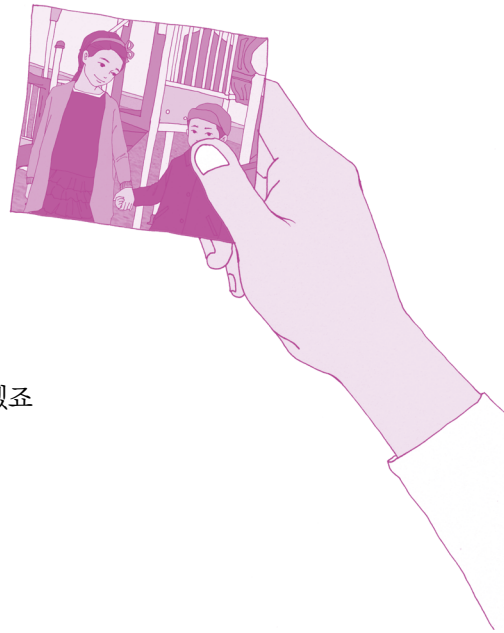
잔소리

김영현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네~ 어머니
 그 친구하고 놀지마라
 네~ 어머니
 반찬 좀 골고루 먹어라
 네~ 어머니
 언제나 잔소리 하시는 어머니
 그 때는 왜그리 싫었는지요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네~ 아빠
 그 친구하고 놀지마라
 네~ 아빠
 반찬 좀 골고루 먹어라
 네~ 아빠
 언제나 잔소리 하는 나
 딸도 내가 하는 잔소리가 싫겠죠

식사 조금만 더 드세요
 알았다~ 아들아
 일 좀 그만 하세요
 알았다~ 아들아
 제 걱정 그만 하세요
 알았다~ 아들아
 언제나 잔소리 하는 나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나



작품평: 좋은 악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들었을 부모님의 잔소리. 그 잔소리가 우릴 바르게 키웠다는 걸 압니다. 그 잔소리를 자식에게 합니다. 그것이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제야 압니다. 누군가의 잔소리가 힘겨울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하게 해주는 시편입니다.



구름 병 이 의 꾸 름

이
호
석

생명이 말라버린
나무껍질들 속에 시키면 콜타르처럼 달라붙어
느림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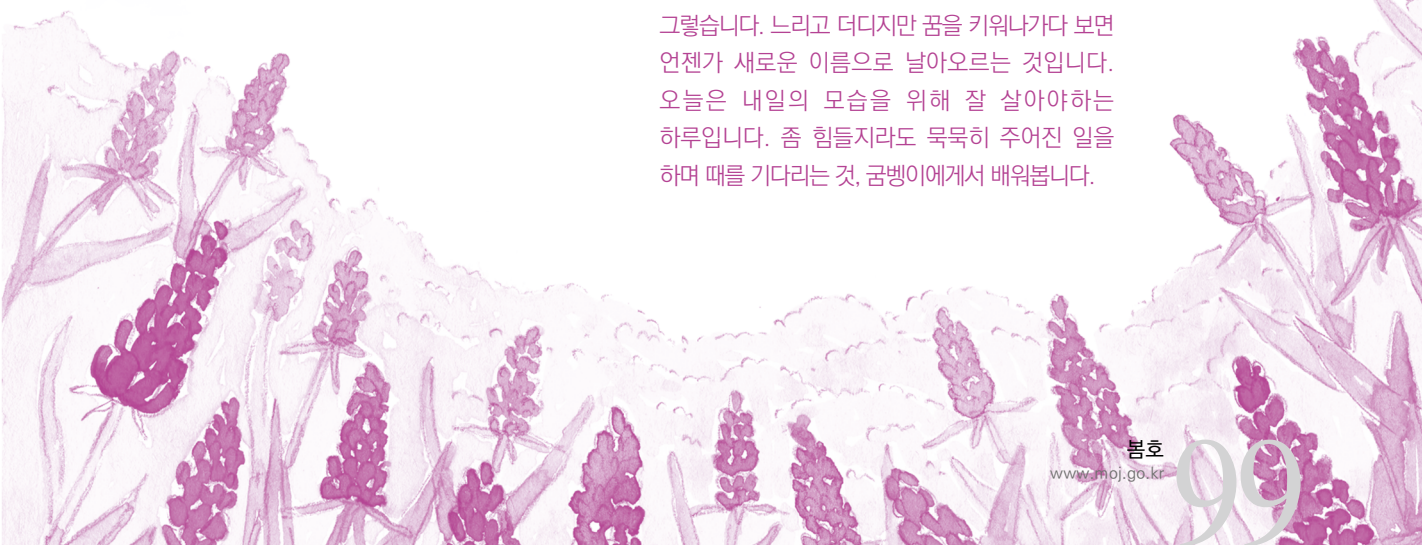
배로 기어갈까 등으로 기어갈까
누가 느리다고 했지
앞이 뒤고 뒤가 앞인가
난해한 모습

하늘을 날고 싶었던 굼벵이는
풍뎅이가 되어 힘찬 날갯짓하려
등으로 그렇게도 빨리 달렸나 보다

느리고 빠르고 앞이고 뒤고
다른 관점의 차이일 뿐
굼벵이는 그저 날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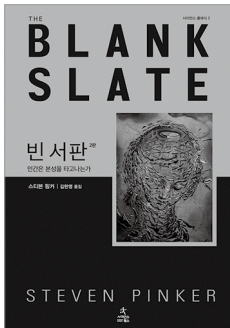
변란하고 곤두박질치는 일상은
거꾸로 뒤집혀야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굼벵이처럼
날갯짓하고 싶다

작품평: 아름다운 나비들이 모두 굼벵이 출신이지요.
애벌레 시절을 지나야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습니다. 느리고 더디지만 꿈을 키워나가다 보면
언젠가 새로운 이름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모습을 위해 잘 살아야하는
하루입니다. 좀 힘들지라도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 굼벵이에게서 배워봅시다.



「스티븐 핑커의 빈 서판」을 읽고

양도영



세상에는 금기시 되는 발언이나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르노빌 주민이나 후쿠시마 피해자에게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을 홍보한다거나, 600만 명이나 되는 홀로코스트 희생자에게 정치적으로 악용된 우생학이나 골상학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겠지요.

그러나 그런 인류 대재앙의 참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최근 개발 중인 안전한 소형 원자로의 개발이나(물론 이것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과거 우생학이 저지른 생물학의 과오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화생물학의 새로운 발견과 놀라운 연구 성과에 대해 함구하거나, 지나친 윤리적 부담이 과학적, 사회적 걸림돌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이중의 고난이 아닐까요?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과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과학적 발견과 성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과학자들과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한번 불에 데었다고 불을 무서워하고 금기시하는 것은 과잉방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교수인 스티븐 핑커의 <빈 서판>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왜곡된 나치즘의 우생학의 피해로 발생한 비극, 홀로코스트 때문에 암묵적으로 금기시된 인간에 대한 본성에(선하건 비열하건 차별적이건 간에)대해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토론을 금기시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핑커의 <빈 서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선 <빈 서판, Blank Slate>는 중세 라틴어 타블라 라사(Tabula rasa)를 의역한 말입니다. 이 뜻은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인간의 마음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깨끗한 공책과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원은 중세 철학자 존 로크(1632-1704)라고 합니다. 이 이론을 심화시킨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존. 왓슨은 극단적으로 자신에게 열두 명의 아기를 맡기면, 그 아이들의 재능, 성향, 소질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뜻대로 의사, 변호사, 예술가, 상인, 심지어 거지나 도둑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극(교육)과 반응이라는 행동주의가 심리학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타고난 인간의 본성과 개성은 무시되고 교육과 양육만이 인간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빈 서판>이론의 알짜이지요. 최근까지도 상당수의 심리학은 아기의 마음은 순수한 백지, 즉 빈 서판이란 가정 하에 출발하며 결국 새로운 기법의 교육법이나 양육법이 유행하고 그것이 또 시들해지면 다른 새로운 <우리아이 하버드 보내기>류의 사이비교육법의 반복이 되었어요. 바르게 가르치면 바르게 성장하리라는 믿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인가 현실과 괴리된 억지스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쳇말로 자식 농사는 절대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빈 서판>이론과 더불어 이 책에서 주로 비판하는 것은 <고상한 야만인>학설과 <기계속의 유령>학설입니다. <고상한 야만인>이란 자연 상태의 인간의 욕심이 없고 평화로우며, 탐욕, 욕심, 폭력은 모두 사회라는 문명 때문에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고상한 야만인>학설은 현재에도 자연적인 모든 것만을 (자연의 순수 식품, 자연분만 등) 무조건 존중하고, 인위적인 것은 불신하는 경향에도 찾을 수 있으며, (실제 우리 식탁의 음식은 모두 인위적 교배에 의한 재배작물인데도 말이죠) 인간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고유한 비극 모두를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려는 데에서 그 영향을 볼 수 있어요. <기계속의 유령> 이론은 그 유명한 르네 데카르트의 학설에서 비롯했지요. 간단히 말해 육체와 정신은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간의 육체는 물리적 법칙에 종속되지만, 마음과 영혼은 그렇지 않고 기계적 법칙에 종속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영혼만 순수하다면 빈 서판도 야만인도 모두 선해지겠지요?

이 세 가지 학설 <빈 서판>, <괴상한 야만인>, <기계속의 유령>을 합쳐서 핑커는 표준사회 과학모델 (The Standard Social Science Model, SSSM)이라고 칭하고,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델의 모류를 밝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표준사회과학 모델이 가진 오류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읽어보지 않는다 해도 그냥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태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와, 위계질서에 민감해 또래 그룹의 리더가 되는 아이, 외국어에 금세 능통해지는 아이 등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를 원곡자 만큼이나 잘 부르는 아이들도 TV에서 단골 게스트로 나오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아이도 빈 서판인 상태로 태어나지 않고, 어떤 본성, 경향, 성격, 소질을 타고 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전적 중요성을 강조하면 양육이나 교육이 위축되고, 반대로 본성을 무시한 양육과 교육은 그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티븐 핑커는 진화심리학, 행동경제학, 유전학, 통계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등 여러 학제간의 연구결과를 총망라하여 매우 설득력 있게 <빈 서판>이론의 허점을 밝혀내고, 기존 심리학 개념들에 대항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빈 서판>일 것이라는 믿음은 지금도 전 세계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적성과 무관한 피아노 학원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네요.

스티븐 핑커의 학문적 동료인 심리학자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개성의 탄생>과 <양육 가설>이란 책에서 인간의 개성, 성격을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요인을 행동유전학의 과학적 기법으로 증명하였는데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두 아이의 성격의 유사성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거의 45%, 두 아이가 누리는 공유 환경(가정환경, 부모님의 교육 등)은 겨우 2~3%, 나머지는 두 아이가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비공유환경이 50%이상을 차지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형성하는 것은 유전적 요인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유전적 요인을 너무 무시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핑커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책의 서두에서 밝힙니다.

그럼 스티븐 핑커가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마음이 <빈 서판>이라는 믿음에 의존하여, 아이들의 타고난 재능과 본성을 무시한 채 맹목적인 교육과 훈육만이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비과학적 믿음.

둘째, 인간의 본성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는 소위 PC함(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으로 옳아야한 한다는 자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여, 진화생물학이나 행동경제학에서 발견되고 연구되는 새로운 발견들에 대한 토론을 위축시킵니다. 초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나 에드워드 월슨의 <사회생물학>등은 인류에게 위대한 통찰을 선사했지만, 발표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정도로 가혹한 비판을 받았지요.

셋째, 인간 본성의 생물학적 발견, 특히 뇌과학 분야는 종종 기성 종교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나름대로의 유구한 가치관과 생활관이 굳어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새로운 발견에 대한 거부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핑커 본인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이 책은 인간 본성에 대한 금기가 어디서 비롯 되었고 그리고 그 금기에 대한 도전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도전의 의미로 쓰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직 우리의 마음어론, 뇌, 유전자, 진화의 과학이 미래의 우리 인간관을 변화시킬지 그 동안 우리가 소중히 했던 가치들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존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시작은 해야겠지요.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벽돌책이지만 저는 너무나 즐겁게 읽었습니다. 특히 18장<젠더> 챕터는 현재 한국의 20~30세대의 남녀갈등에 대해 시사 하는 바가 아주 많아 유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리처드 로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서문으로, 로버트 트리버스라는 생물학자가 쓴 너무나도 멋진 글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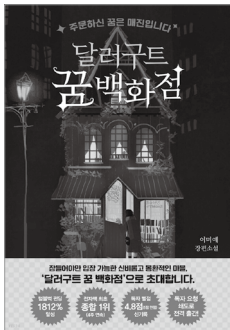
「다윈주의적 사회이론은 사회적 관계의 기초에 놓인 대칭과 논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성격을 더욱 깊이 이해할수록 정치적 이해를 소생시키고 심리과학과 의학을 지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간이 가진 고통의 여러 뿌리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는 고통의 여러 뿌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빈 서판>을 읽으며 같이 찾아보실까요??

작품평 : ‘나는 누구인가’와 함께 ‘인간 본성’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질문되고 토론되는 주제이지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빈 서판, 고상한 야만인, 기계 속의 유령 이론으로 집중시키네요. 저자가 비판하는 것을 세 가지로 잘 정리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인간은 본성을 타고날까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을 읽고

신대섭



‘불혹’이라는 나이를 지나버린 나에게 어쩌면 지금의 이 시간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나에게 또 다른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곳에서 지금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필자는 오늘 언급하려고하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이 존재하는지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독서라는 범주 안에서 종이로 된 책장을 넘겨본적이 과연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투자할만큼 여유로운 삶이 아니었다. 이제는 독후감이 어떤 것이었고 어떤 형식이었는지도 기억속에 남아있지 않지만


얼마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형, 이 책 그냥 쪽쪽 읽어져서 시간보내기 괜찮아요”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두 권의 책이 바로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이라는 책이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나이 마흔이 넘은 나에게 ‘이건 무슨 초등학생 책인걸까’라는 생각을 하며 책 뒷면에 적힌 한줄 평 정리들을 먼저 읽기 시작했다. “꿈같은 이야기였다”, “빨리 다시 잠자리에 들어 꿈을 꾸고 싶다”라는 한줄 평이 약간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그래 재미삼아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대망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꿈(DREAM)이라는 세계관속에서 주인공 ‘페니’는 지금의 우리처럼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다. 취준생의 신분으로 희망은 우리 시대로 따지면 명품만 취급하는 매장 같은 곳으로

'달러구트'씨가 운영하는 꿈백화점이다. 시작은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며 탁월하게 합격하고 '웨더'라는 이름의 매니저가 근무 중인 1층에서 캐쉬와 매대관리 및 제품의 D.P를 하는 보조직으로 채용되었다. 역시나 소설답게 너무나 현실적인 묘사였고 이 곳 꿈백화점은 세계관 속에 존재하는 꿈 제작자들의 로망이고 만드는 꿈을 소비자인 우리에게 판매하여 수입을 보장해주는 매장이었다.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층별로는 테마가 다르고 주고객이 다르다. 이를테면 반려동물이나 동물고객님들은 4층의 고객인 것처럼 주된 꿈이 나누지만 1층은 베스트셀러 그리고 신작 등 우리가 아는 대형매장의 메인관 같은 느낌이다. 동물로도 꿈을 꾸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살아볼 수도 있고 꿈속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를테면 고래가 되어 1인칭 시점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꿈처럼 말이다. 결제는 꿈을 꾸고 느끼는 감정이나 마음으로 결제를 한다. 후불제이고 '설레임', '따뜻함', '환희'같은 감정과 '두려움', '공포' 등의 감정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 감정이 꿈을 제작할 때 필요한 구성요소가 되기도 하고 말이다. 주인공 '페니'는 이 백화점에서 일을 하며 단골손님과 제작자들을 연결하기도 하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열정직원으로 대표님이신 '달러구트'의 눈에도 들어 함께 하는 여정을 그린다. 책을 읽으며 작가님의 아름다운 표현과 섬세한 글의 전개에서 때로는 미소가 지어지고 때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단골손님을 위해 꿈을 배달하던 에피소드에서는 혼자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며 여러번의 감정여행을 다녀왔고 잠시 동안 행복했고 아주 슬펐고 또 포근해졌다. 이 모든걸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작가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기억'이었다. 조금 전 에피소드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 꿈 백화점에서 가장 인기있는 꿈이 바로 '회상'이다. 좋았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등 우리도 과거로의 꿈을 꾸 본적이 있다. 이제는 빛이 바랜 어린시절 친구와의 기억속으로 내가 행복에 겨워 어쩔줄 몰라하던 그 시절 그 영광의 기억속으로 말이다. 그런데 이 소설의 두 권 전체에서 고객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에서만이다. 한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배송요청을 하며 커스텀제작을 하는 중, 바로 어떤 연유건 곧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먼 곳으로 떠나는 이들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 그리고 부모님에게 또 나를 사랑하고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꿈이다. 필자는 약 6년 전 12월 5일, 2월 9일 두 분의 부모님을 두 달을 사이에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 몇 개월간의 암투병, 그리고 갑작스런 뇌출혈로 정신도 없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모님과와는 꿈속에서 혼나기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생전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내 아버지는 7년이 되도록 단 한번도 꿈에 나온적이 없다. 내가 장남이라 아마도 주문을 잊지는 않으셨을거라 믿고있는데



말이다. 너무 그리웠다고 힘들었다고 투정도 부리고 왜 그리 급하게 준비도 못하도록 갑자기 가셨는지 따지고 싶었지만 단 한번도 꿈 꾀적이 없다. 그런데 ‘달려구트’와 제작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꿈들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배송받는 이들이 준비가 되어야 배송이 가능해, 그래야지만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삶의 영향이 없어”라고 내게 가볍게 정리해주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안도도 되고 이 나이에 내가 아직도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으며 종국에는 스스로 아버지와 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어디를 가든 옆자리에 꼭 데리고 다녀야했고 27살이 된 다 큰 아들을 ‘우리아가’라고 불러 식당안의 모든 눈초리를 받았던 기억 그리고 내 얼굴이 박힌 포스터를 오려서 돌아가시던 그때까지 지갑속에 지니고 다니던 아버지와 나를 이제 스스로 ‘기억’해 내고 있고 지금도 나는 배시시 웃고 있다. 나는 작가에게서 이 소중한 ‘기억’을 선물 받았다.

두 번째로 작가가 준비한 선물을 ‘설레임’이었다. 우리는 흔히 ‘설레임’이라는 감정을 남, 녀 사이에 기대심리에서 나오는 연애감정이라고 생각한다. 틀린것은 아니다 필자도 13년째 아내를 보면 설레이고 있으니 하지만 그 외에도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처럼 처음하는 모든 것에 ‘설레임’이 붙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설레임’이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설레던 순간은 언제인가? 필자는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설레던 때를 생각하고 작가님과 감정을 맞춰봤다. 아마 서두에 나이 대를 공개하였기에 예상 가능하겠지만 바로 나를 꼭 닮은 아들을 만나던 그 때를 떠올렸다. 소설속에도 꿈 제작자중 고령이신 ‘아가’님이 바로 태몽을 제작하고 그 꿈이 주는 벽찬 설레임을 이야기한다. 지금 나 역시 그 꿈을 기억하고 있고 떠올리는 지금도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데도 내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나에게도 아직도 아기이고 그 태몽이 이모님이 주셨는데, ‘고추밭에서...’, 바로 아들이구나’ 했더랬다. 아직도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 외에도 처음 고백하던 설레임, 처음 차를 사고 처음 비행기를 타고 첫 월급과 처음 마련한 내 집 등등 너무나 많은 처음에는 ‘설레임’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 영화 ‘부산행’ 말미에 공유가 변해가는 자신을 보며 기차에서 뛰어내릴 때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때를 기억하며 웃으며 뛰던 그 표정도 나는 ‘설레임’이 있었다고 믿는다. 지금은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고 돌아보며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의 끝에 다시 만날 가족에 대한 ‘설레임’이 조금씩 부피가 커져가고 있다.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되어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가 나를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는다. 그래 나이 마흔이 넘고 아저씨가 되어도 설레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준 선물은 바로 ‘꿈’꾸는 것이었다. 코로나가 집어삼킬 무렵부터 관련물품을 유통하던 나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자는게 일상이었다. 잠을 자는 시간은 기회를 뺏어간다고 생각했고 며칠을 그렇게 버티다가 한번씩 지치고 힘들어서 꿈은커녕 기절하듯 잠들기 일쑤였다. 그러다 상황이 안좋아지고 난 이후에는 내일이 온다는 것이 싫어서 잠을 안자고 버텼었다. 어느샌가 ‘잠’을 자야 꿀 수 있는 ‘꿈’은 단어의 존재감조차 깃털처럼 가벼운 것으로 나에게 인지되었다.

이 책에서는 줄 곧 찾던 단골손님이 조금씩 뜸해지다가 발길을 끊는 손님들이 묘사된다. 매출의 감소 원인을 분석하던 ‘페니’와 직원들은 ‘시험기간 때문에’ ‘축구중계를 보느라’, ‘일치리 할 것들이 많아서’ 등 갖가지 이유와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하느라 램수면을 취하지 못해 백화점에 오지 못하는 고객까지 많은 부류가 나온다. 읽다보니 또 내 과거와 대입이 되더라, 난 일을 핑계로 취침을 미뤘고 EPL의 토트넘 경기는 챔피언스리그부터 FA컵까지 모든 경기 중계를 새벽 4시에도 챙겨보고는 했다. 그렇게 나는 잠과도 멀어지고 ‘꿈’과도 멀어졌다. 그런데 정말 ‘꿈’을 꾸는게 좋은것인가? 이 의문이 들 때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 ‘달리구트 꿈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체험된 꿈을 통해 경험해보지 않는 경험을 느껴보라고 또 다채로운 색깔의 꿈을 통해 지금껏 본적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해보라고 우리 꿈을 사서 주인공이 되어 보라고 말이다. ‘그랬다’ 우리는 어린시절 꿈속에서 동경하던 가수가 되어볼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되어보기도 했다. 좋아하던 누군가와 사랑해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보기도 했다. 때로는 꿈 꿔던 장면을 현실에서 중첩시키며 ‘예지몽’이라고하고 ‘데자뷰’를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복꿈이라며 맞지도 않는 복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지루한 일상에 청량음료같은 역할을 하기도하고 터닝포인트에 대한 접근성을 주기도 한다. 단지 꿈꾸는 것 하나만으로도 말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잠’을 통해 조물주가 주는 선물이 아닐까?

이 책을 통해 나는 ‘기억’했고 ‘설렘’을 느꼈다. 그리고는 이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길 희망하고 있다. 그 ‘꿈’을 통하여 앞으로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꿈’을 다시 선물해준 작가와 책에 대해 감사하며 또 다른 독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shall we dream~?”

작품평 : 소설이 기억과 설렘, 꿈을 선물로 주었군요. 에피소드를 적절히 넣어 실감나게 책 소개를 잘 하였습니다. 꿈을 파는 백화점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꿈을 사서 꾸고 싶나요? 매진되기 전에 주문하여 오늘 밤 원하는 꿈꾸세요.

「파블로 네루다 자서전」을 읽고

황석조



파블로 네루다 자서전
스페인어로 쓰여진 자서전으로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 문학동네

체 게바라는 말마다 네루다를 읽었다.
출판사: 문학동네
Pablo Neruda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자서전이나 평전만큼 좋은 책은 없다. 평전이 제3자가 쓴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라면 자서전은 말 그대로 자신이 쓴 회고록이다. 따라서 자서전은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없지만 그 사람의 육성이 들리는 듯 하고 그를 따라 동반자가 되어 그의 인생에 참여하게 된다.

참 오랜만에 자서전을 읽는다. 「스콧 니어링」이후니 한 십년 만인가. 이 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많은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인물전을 보듯 동네 깡패, 무명시인에서 카스트로, 스탈린에 이르기까지 자서전이라는 책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언급되는 인물이 족히 수십 명은 되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을 만났다면 당연히 많은 나라를 다녔을 것이다. 미안마, 인도네시아에서 유럽 남미제국까지 그가 다녀간 나라들이 네루다의 기억에서 술술 쏟아진다.

인생의 맨 끝 지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 만남을 더듬어 보고 그 사람이 자신을 비난한 사람일지라도 유머로 넘기는 시인의 자세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 한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를 돌아다녔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지 않을까?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 시집을 내며 촉망

받던 24살의 젊은 시인은 친지의 알선으로 하급 외교관 영사가 되어 미얀마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체류하게 된다. 이때는 현지 풍광에 놀라고 네루의 국민회의 등을 지켜보며 외교관으로서, 여행자로서 방관자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스페인 체재시 스페인 내전을 체험하고 우정을 나누던 코르카 시인이 암살당하자 세계정세에 관심을 기울이고 민중에 대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 70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이 순간을 네루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최초의 탄환이 스페인 기타를 관통하고 거기서 음악 대신에 피가 솟구쳐 나오자 내 시는 인간의 절망이 널브러진 길 한 가운데에서 유령처럼 서성거렸고 시에서는 무수한 뿌리가 생겨나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때부터 내 길은 다른 사람의 길과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고독이라는 남쪽에서 민중이라는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20세기 초중반 지금까지 고독 속에 은거하며 현실과 떨어져 자기만의 시세계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는 약자와 함께 숨을 쉬고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한다. 프랑코에 맞서 반파시즘 작가 대회를 조직하고 스페인 망명자를 칠레에 데려오고 나중에는 자국의 탄광노동자를 위해 정치인으로써 변신하게 된다.

자연 그의 시속에는 열렬한 민중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민주화 투쟁을 하다 감옥에 간 우리나라 시인 김지하처럼 그의 두 손에는 민중과 시가 들려 있고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이 두 개가 감아 돌아 그의 인생과 시가 다채로워지고 풍부해진다. 아마 노벨상 수상은 이것을 인정할 결과이리라.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자가 된다.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와 맞서 조직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민중 편에 서서 변혁을 주장하고 투쟁하는 이들이 그들이었기에 공산당원이 되었고 회고록을 쓰는 만년에도 한 점 후회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자가 됨으로써 박해도 받고 끝내 조국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보면 그는 공산주의 실체, 일인독재와 일당독재를 보지 못한 커다란 우를 범한 것도 사실이다.

뭐니 뭐니 해도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 시를 쓴 시인이다. 수많은 시집을 남겼고 각국의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시를 좋아해서 이 책도 더욱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인데, 시는 제대로 한

편도 소개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지만 시에 대한 그의 견해가 여러 군데 나와 있어 밑줄을 치고 천천히 음미해 보았다.

“문체는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문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기도 하다. 대기가 스며들지 않은 시는 죽은 시다. 숨을 쉴수 없기에 죽을 수 밖에 없다.”

“나는 독창성을 믿지 않는다. 독창성이란 급속도로 몰락해가는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미신에 불과하다. 나는 개성을 믿는다. 예술창조에서 어떤 언어의 형식을 사랑하든, 또 예술 작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개성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되는 리얼리스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다. “리얼리스트가 아닌 시인은 죽은 시인이다. 그러나 리얼리스트에 불과한 시인도 죽은 시인이다. 합리와 비합리라는 양극단을 시 내부에서 부단히 닦고 있으며 한 번은 이쪽이 승리하고 다음번에는 저쪽이 승리한다. 하지만 시 자체는 결코 패하는 법이 없다.”

그는 노벨문학상을 포함해 수많은 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이란 나비의 날개에 묻은 꽃가루처럼 덧없다고 한다. “내가 받은 제일 큰 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멸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받기 어려운 그런 상이다. 어려운 미학적 연찬을 거치고 수많은 언어의 미로를 통과한 끝에 민중시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상이다. 햇별이 이글거리는 대낮에 힘겨운 노동으로 얼굴이 상하고 먼지 때문에 두 눈이 별경게 충혈된 광부가 흡사 지옥에서 올라오는 사람처럼 로타탄광의 갱도에서 나오더니 나를 보자마자 대번에 투박한 손을 내밀고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묵직한 순간이 바로 내가 받은 상이다.”

이 책은 530쪽이 넘는 분량이 많다면 많은 책이다. 그러나 쉽고 평이해서 읽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인이 살았던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흥미 있게 아니면 그냥 지나쳐도 책을 이해하는데 조금의 지장이 없다. 번역한 이가 썼듯 마치 네루다라는 창을 통해 20세기 세계사를 들여다보는 듯하다.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로 그는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더욱 관대해지고 식견이 풍부해진다. 마치 칠레 원시림의 고목처럼 그 나무가 햇빛과 바람과 물을 받아들여 제 뿌리와 높이를 늘려갔듯 그는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우정과 연대를 통해 세계 인류 평화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시가 사랑이기에 민중에 대한 사랑으로 나갔는지, 민중에 대한 사랑이 있어 그 시가 깊어지고 내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세계를 낙관하고 사랑의 가능성을 믿는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는 여전히 사랑의 가능성을 믿는다. 또한 사람들이 고통을 딛고 일어나, 피와 부서진 유리를 딛고 일어나 서로를 이해하리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팔을 벌려 따뜻하게 포용하며 연대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잘못되었더라도 우리 삶을 고쳐 보면 그의 부름에 대한 답이 될까. 우리의 회고록은 많은 부분 글자가 없는 빈 페이지, 여백이다. 그 부분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 삶에 달려 있다 하겠다. 회고록, 자서전을 쓰는 자세로 앞날을 살아간다면 네루다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은 빛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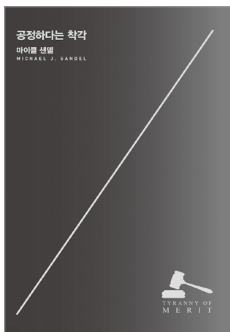
아시아, 유럽, 미국이 아닌 라틴아메리카에서 나온 최초의 책을 네루다의 자서전으로 읽게 되어서 기쁘다. 자서전을 읽었으니 시집을 찾아 읽어보고 추후의 일이 되겠지만 남북으로 긴 칠레 여행을 하고 싶다. 네루다가 머물렀던 발파라이소, 이슬라네그도 꼭 찾아보고 싶다.

작품평 : 칠레의 대표 시인 자서전이군요. 시인의 말을 인용하고 인용문이 나온 배경과 의견 등을 피력하며 주장을 펼칩니다. 네루다라는 창을 통해 20세기 세계사를 들여다보았다면 이제 자신의 여백을 채울 발걸음을 디터보세요.



「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 을 읽고

박상연



마이클 샌델은 대표적인 저서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들 수 있다. 그는 2010년 이후 한국에 ‘정의’ 열풍을 일으켰다. 이 책은 전 세계 27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저자는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학력과 능력의 연관 관계’를 분석한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능력=학력’이라는 등식은 성립하는가?

우리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가 뜨겁다.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 캐슬’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입시 경쟁에 관한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 ① 능력주의가 문제라면 해답은 뭘까?
- ② 직무 능력보다는 연줄이나 갖가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걸까?
- ③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상류 계층 출신들만 받아들여던 때로 돌아가야 할까?

2. 능력주의의 이상과 현실

‘능력주의의 실현’은 곧 엘리트를 양성하는 대학교육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은 현대 사회의 기회 배분 시스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명문대 입시가 점차 과열되고 있는 다수의 미국 대학에서는 기부금을 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는 결국 명문대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과 대학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제임스 브라이언트 코넛트는 ‘능력주의’를 주장한 선두 주자로 손꼽힌다. 그는 하버드대 총장으로 활약하였으며, 세습 상류층이 득세하는 현상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하버드대와 다른 명문대에서 부유하고 경박한 젊은이들이 하인을 데리고 교정을 누빈다. 그들의 생활은 파티와 스포츠 위주지 공부가 아니다,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로펌, 월스트리트 은행, 외교부, 연구병원, 대학교수진 등을 장악한다.” 제퍼슨은 코넛트와 동일하게 ‘부와 태생에 따른 귀족제’를 반대했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잘 설계된 교육 시스템이 가난한 계층 사이에서 천재적인 젊은이를 골라낼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위와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그는 버지니아주에서 ‘공교육 시스템’을 제안했으나 그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3. “사모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명대사의 한 대목이다. 이는 미국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될 법하다.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 점수가 응시자 집안의 부와 연관도가 매우 깊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특권층 자녀의 SAT 점수는 사설학원 모의고사 코스나 가정교사 등에 의해 좌우되는 셈이다. 한 예로 맨해튼에서는 1:1 과외비가 시간당 1,000달러다.

그리고 하버드대 동문 자녀의 87%는 합격했으며, 엘리트 학교인 뉴잉글랜드 기숙학교 출신을 우대했다. 반면 일반 공립학교 지원자는 매우 높은 수학능력을 입증해야 했다. 이는 여성, 인종, 민족 등을 차별한 관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코넛트가 주장한 ‘능력주의적 입시 제도’는 무계급 사회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특권층 자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폐해를 낳았다.

미국 내 TOP 100 대학 입학생의 70% 이상은 소득 상위층이며, 단 3%만 하위층으로 조사되었다. 예일대, 프린스턴대는 50명 중 1명꼴로 가난한 학생이 선발되는 셈이다. 또한 소득 상위 1% 계층의 아이비리그 진학률은 소득 하위 20% 계층보다 77배나 높다. 심지어는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은 절반 정도는 2년제를 진학하거나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미국에서는 과연 개천에서 용 날 수 있을까?

마이클 샌델은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미국 우수 대학들이 갖춘 학문적 평판, 학문적 기여, 교육 관련 서비스 등의 탁월함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그런 기관들이 사회적 이동성의 효과적 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향은 미국 명문 사립대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하버드대 출신 1.8%, 프린스턴대 1.3%만이 소득 수준이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올라갔을 뿐이다. 주요 공립대인 앤아버 소재 미시간주립대의 사회적 상승률은 1.5%이며 재학생 중 3분의 2가 소득 상위 5% 출신이다.

그리고 버지니아대 주립대의 사회적 상승률은 1.5%에 그쳤다. 재학생의 약 3%만이 빈곤층 출신이다. 반면에 UCLA,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는 약 10% 정도의 학생을 최하위 소득층에서 선발하고 있다. 이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5배, 대부분의 명문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 사례로 꼽는다. 미국 내 총 1,800개 대학이 소득 하위 출신 학생을 받는 비율은 고작 2% 미만이다. 이러한 미국 대학들의 관행은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단골 구호가 되는 실정이다.

5. 능력주의의 한계를 최소화할 수는 없을까?

최근 수십 년간 미국 대학들은 대학 동문 자녀에게 입학 우대(기여 입학)정책을 쓰고 있다. 이들을 입학시키면 기부금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하버드대는 동문 자녀의 입학 가능성이 다른 수험생보다 무려 6배나 높다. 실제로 하버드대 동문 자녀는 3명 중 1명, 비동문 자녀는 20명 중 1명꼴로 입학하는 셈이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거액을 기부한 자의 자녀를 우대하고 있다. 학업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학생을 받는 대신 새 도서관, 장학 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학력 기준의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했다. 참고로 하버드대는 약 10%의 학생들이 기부금 입학하고 있다.

그리고 체육 특기생 선발은 부유층 자녀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 미식축구, 농구 등의 인기 종목은 체육 특기생의 학력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 대부분은 부유한 백인 출신이 독차지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스쿼시, 조정, 요트, 골프, 펜싱,

승마 등은 부유층 자녀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전 프린스턴 총장이 19개 대학 체육 특기생을 분석한 결과 그 중 약 5%만이 소득 하위층 학생이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6. 그렇다면 과연 대책은 무엇일까?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은 명문 사립대학의 동문 자녀 입학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또한 예일대 법학 교수인 다니엘 마코비츠는 신입생 50% 이상을 소득 하위층으로 선발하고, 이를 위반하면 모든 면세 혜택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 마이클 샌델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오늘날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넘어 길을 찾으려면 능력주의의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갈등 지향적 정치에 필요한 해답이, 과연 능력의 원칙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계층을 나누고 경쟁시키는 일을 넘어 공동선을 찾는 것인가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느새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사회 전 분야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여부는 모든 분야에서 ‘생존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마이클 샌델이 진단하고 제시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시대 흐름을 읽는 혜안’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끝으로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당신에게 ‘선물 같은 문장’을 전한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배움으로 여긴다면 선물은 반드시 찾아온다.” - 스펜서 존슨 「선물」

작품평 : 공정은 정의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정의롭지만 공정하지 못한 것과 정의롭지 않지만 공정한 것. 공정한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많은 일과 선택의 순간에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생각을 불러오는 독후감입니다. 여섯 가지로 정리를 잘했습니다.

“독후감”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정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도피하고 폭발하며 내가 쌓은 벽 안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갈 때, 부정적 패턴을 끊어내지 못해 다시 그 속으로 휘말리는 순간 나는 행복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았고, 산다는 것은 마음을 붙드는 일인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구속된 후, 처음에는 분노와 타협, 좌절과 극복을 반복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헤치고 방향을 세우며 나의 마음과 투쟁 중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게 나를 지탱시킨 가족들, 나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 나를 크게나 작게나 도와준 모든 사람들, 나의 허물을 알고도 참고 품어준 사람들의 소중함을 모아, 나는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수감생활 중 내가 선택한 ‘취사장’은(봉사기간 1년 3개월) 나의 본질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취사장 봉사에 담긴 무게나 ‘하고자 했던 책임감의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만하지 않은 선에서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주하게 봉사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어떠한 배움들을 통해서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삶을, 관계를 그리고 나를 다르게 바꾸었고 덕분에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매일 시험보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역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취사장'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직업훈련교육(타일)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잊지 않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옳고 그른지를 이야기할 순 없지만 어떤 생각을 했으며 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잘된 점이 있었다면 무엇 덕분이고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지금 내게 부족한게 무엇인지 나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며, 오늘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되돌아 볼 것입니다.

봄, 봄이 되어 새날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는 날들을 감사할 것이며, 내가 나를 끊임없이 보듬고 붙드는 여정을 할 것입니다. 근면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에 대해 마음의 매무시를 다잡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겠다는 나의 다짐입니다. 고맙습니다.

작품평 : 산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붙드는 일입니다. 분주하게 봉사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을 칭찬해주는 삶, 자만하지 않으면서 남을 격려해주는 삶이 결국은 이 작품이 지향하는 멋진 삶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우수작입니다.



어쩌다가



김정남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저와 함께 뒹굴며 살아온 얘기들을 좀 넣어놓을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어린 시절 딱지치기, 구슬치기, 개울가에서 껌벗고, 가재잡고, 송사리도 잡으며 함께 물장구치던 B와 Y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한 동네에 삼총사로 살고 있는 코흘리개 친구들이었죠.

우린 이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성인이 되고 제각기 삶속에 직종도 달랐죠. 저는 실내 인테리어 하면서 자취를 했고, B친구는 자기 부모님과 함께 마트를 운영했고, 그리고 Y친구는 목수 건축일을 하면서 한 대문 안에 여섯칸으로 나뉘어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자취를 했죠.

우린 이렇게 한 동네에 살면서 마트를 운영하는 B친구가 이것저것들로 먹을 것을 가득 챙겨오는 것을 먹어가며 저의 자취방에서 날밤 세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 일요일 낮에는 Y친구 자취방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제가 자주 놀러간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Y친구가 살고 있는 칸칸의 방들 중에 첫 칸에는 Y친구가 살고, 다섯 번째 칸에는 어느 철공회사 사무실직에 근무하시는 경리 아가씨가 살고 있었죠.

이제 답이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주 간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더 눈도장을 찍고 싶어서. 그리고 얼마 후 제가 Y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후 경리아가씨 좋아하냐고. 그러자 담담하게 아니라고, 저 아가씨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며 아주 단호하게 말을 뱉더군요. 그럼 내가 꼬셔봐도 되냐고 묻자, 네 알아서 하라는 말투!

그리고 얼마 후 Y친구는 제가 경리아가씨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순간 멍했고, 배신감이 들며 제가 미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렇게 Y친구는 너무 뜬금없다 망쳤다고 해야 하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사랑 앞에 용기 없는 바보같은 미련한 때문에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우스운 꼴이되고 말았다는 말이 맞을까요?

한동안 저는 Y친구의 여인을 가로챈 나쁜 놈으로 허설이 돌아 한동안 Y친구와 저는 우정에 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세월이 약이 된다고 우리의 자숙 시간은 끝이 나고 다시 옛 우정의 삼총사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옛말에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차지한다고 이 말을 Y친구에게 농하면서 놀리는 대상의 말이 되었고, 짚신도 짚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삼총사는 깊이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도위반으로 경리 아가씨와 결혼을 하여 딸, 딸, 아들, 셋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로는 친구들의 술 한 잔 하자는 전화도 많이 씹게 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께벗고 물장구치던 우정보다 신혼의 깨 볶는 향수가 더 진했나 봅니다. 경리 아가씨의 향수에 취해 친구들의 부름에도 씹었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묵은지라도 누가 어떻게 양념을 넣고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깊은 맛을 가진 묵은지라 할지라도 그 맛은 달라지고 변한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덕이 됐죠.

그리고 몇 개월 후 여름에 우리의 삼총사는 다시 만나 오랜만에 막걸리 몇 병을 사들고 뒷산 약수터에 올라가 옛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데, 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 내용은 제가 공사를 몇 군데 맡아 했는데 그 중의 한 곳에서 어음 부도가 났다고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며 내려와 수습을 하고 또 열심히 닦치는대로 공사를 맡아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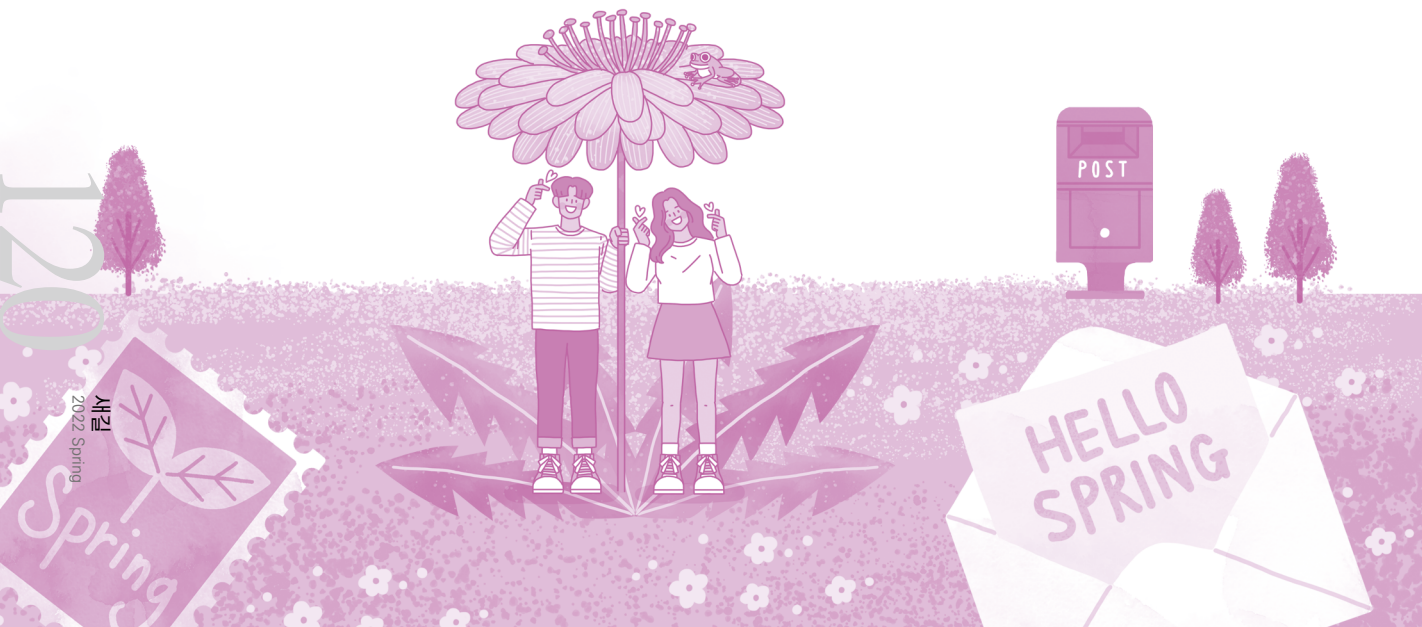
마치 짠 듯 이곳저곳에서 불과 1년 반 만에 크고 작은 어음부도가 3곳이나 터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숨 쉴 틈도 없이 그간 일구어 놓은 것들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론 제 삶속엔 늘 술이 개입되어 제 정신을 흐려놓고 매일같이 술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다가 끝내는 이기지 못할 술로 인해 큰 실수로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 생각해보니 제가 꿈꿔왔던 것들은 행복이 아닌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실패의 원인도 무리한 욕심이 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가진 꿈이 다르고 행복의 기대치도 다른데, 저는 남들이 정해준 기준치를 목표로 삼고 정상에 올라야만 행복하다는 어리석음이 큰 화근이 되었다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와 이곳에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영어의 몸이 된 후 이혼을 하고 11년째 지금까지 무사무탈하게 잘 자랐을까... 비록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처럼 정말 강한 엄마가 되어 건강하고 무탈하게 각자의 앞가림을 할 나이까지만이라도 우리 애들을 잘 좀 보살펴줬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소망이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미꾸라지 용됐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개과천선 되었다는 소리는 듣기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품평 : 우리는 저마다 꿈이 다르고 행복의 기대치도 다릅니다. 작자는 자기가 꿈꿔왔던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욕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치를 목표로 삼고 정상에 올라야만 행복이라고 여겼던 어리석음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감하는 내용을 테마로 인생관을 정립해가는 글솜씨가 훌륭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20
새길
2022 Spring
Spring
HELLO
SPRING

살아온 인생



어릴 적 한마을에 친척들과 한동네에서 용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내 나이 일곱 살 때 어느 날 가을 황금 들녘 마을 어귀에서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누구 집 아들 아니냐? 하면서 물어보길래 예! 제가 맞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따라서 얼떨결에 전라남도 ○○시 ○○리 시장통 근처에 저를 놔두고 사라졌습니다. 시장통에 3~4일 동안 배를 굶주리는 찰나에 어느 낯선 아저씨를 만나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길래 따라 갔는데 구두땀이 소굴에 머무르면서 짝새부터 한 단계 올라오면 짝새, 짝새는 구두를 가져오는 것이고 짝새는 구두를 닦아주는 것을 짝새라고 은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일당을 못 채우면 많이 두들겨 맞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몰래 껌팔이 하다가 일부 돈은 주고 일부 돈은 몸에 감추다가 들켜서 몽둥이로 엄청 두들겨 맞고 매의 독이 가시질 않아 며칠을 앓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3년 세월이 흘러 있다 보니 너무 힘들고 해서 ○○○역에 무작정 아주머니께 사정을 해서 기차를 탔는데 도착해보니 생판 모르는 ○○ 바닥이었습니다. 막상 갈 곳이 없었는데 가다보니 오래된 초가집에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사정 이야기를 하자 저를 딱히 여기셨는지 김밥 장사를 해 볼 수 있겠느냐 하자 제가 전라남도 ○○ ○○리에서 안 해본 일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김밥집을 소개받아 나무 재질로 된 사각으로 맞춘 통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역과 ○○이란 두 지역을 김밥을 팔러 다녔습니다. 할머니 배려로 잠은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그 기억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풍으로 할머니 집이 소실되어 할머니와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아저씨를 만나 바닷가 뱃일 하면 김밥 장사 보다 훨씬 낫다고 해서 섬에서 뱃일을 1년 넘게 하였는데 임금을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섬을 나와 할머니 큰 따님에게 찾아가 섬에서 뱃살을 받지 못해서 사정사정해서 같이 섬으로 가서 10여 차례 끝에 임금을 70% 밖에 못 받았습니다.

14살 때부터 건축일과 이것저것 돈을 벌기 위해 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17살 때 다시 고기잡이 어선 배를 타기 시작해서 22살 때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이 짧고 돈만 벌었는데 한순간 실수로 여자를 잘못 만나 제 재산 전부를 탕진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하려고 술에 취해서 섬 산등성이 위에서 떨어져 바위에 부딪쳐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마침 지나던 고기잡이 어선이 저를 발견해 구해줘서 머리에 상처만 입었습니다.

한번 들어온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용생활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2011년경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갱생이란 단어를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갱생 다시 태어난다. 출소하자마자 부모님 전 산소에 향을 피우면서 절을 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해서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고 빨리 사회 적응해서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아 알콩달콩 사는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작품평 : 부모님 산소에 찾아가 절하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원인 작자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행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솔하게 써내려간 감동적인 글입니다.

“수기”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수필가 문복희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서간문

사랑하는 나의 보물 1, 2호

전진희



사랑하는 엄마의 보물 ○○, ○○이에게

엄마가 집을 떠나 온지도 벌써 4년이 넘어 5년이 되어가네. 그 때 ○○가 2학년 ○○이가 18개월이었는데... 시간은 야속하게도 벌써 우리 ○○는 중학교 입학, ○○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네.

엄마가 매일 매일 기도하는데 입학식 전에 집에는 못 갈꺼 같아. 너무 너무 미안해... 매일 밤 9시에 약속한대로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왕자님들 너무 너무 미안해... 엄마가 노력해서 자격증도 따고 매일 매일 접견되게 했는데 아직 집에 갈 수는 없나봐. 그래도 엄마가 올 ○○랑 ○○이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편지를 새길이라는데 실릴 수 있게 용기내어 펜을 들어본다. 그러니까 우리 ○○, ○○이도 조금만 더 힘내서 기다려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엄마 콜라 못마실까봐 걱정된다고 콜라 사가지고 엄마 찾아오다 길 잃어버린 게 옛그제 같은데... 이제 엄마를 위로할 줄 아는 멋진 청소년이 되는거녕~ 정말 대견한 우리 ○○...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났을때도 ○○가 이제 엄마랑 ○○이 할머니 지켜준다고 약속했던거 엄마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코로나여도 혼자 공부도 잘하고 동생도 잘보는 멋진 엄마의 보물 1호... 아직 여자친구 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다 아는뎡 ㅋㅋ 이제 엄마가 우리 ○○랑 ○○이에게 아빠 뒤편까지 사랑하고 지킬

거야. 비록 입학 전에 집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멋진 큰아들
고마워~

그리고 말쑥쟁이 울보 ○○이 이제 학교다니는 형아 된거야 그러니깐 ○○이 지금처럼 형아 말
잘 듣고 할머니한테 자꾸 바나나 우유만 사달라고 조르지 말공~ 엄마 집에 갈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둘려주라.

멋쩍 엄마 보물1호, 2호 잘 할 수 있지? 우리 지금까지 잘 이겨냈으니깐 조금만 더 힘내자.
사랑하는 ○○랑 ○○이에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는거야 너무너무 사랑한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떨어져 이 곳에 있는 부모님들께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모니까요. 모두 사랑하는 아이들 생각하시며 힘내세요.

작품평 : 개인으로 인간은 약해도 부모는 강하다지요. 자식은 엄마가 살아가는 힘이고요. 보물 1, 2호가 든든한
아들들이네요. 첫째와 귀요미 둘째까지 예쁜 보물들을 사랑하는 엄마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두
형제의 입학식은 참석 못하더라도 졸업식에는 꼭 참석하여 입학식에서 못한 축하까지 마음껏 해주세요.



어머니

최용대

창문에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봄비 내리는 날.
어머니 누워있는 병실에서 편지를 씁니다.
창으로 넘보는 햇빛하늘. 소리 없이 가슴속으로 스며들 때
가슴기는 연신 하얀 증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산도, 들도, 바다도, 녹음의 절기를 여념 없이
깊이도 모르게 계절 속으로 끊임없이 문혀 갈 때
낮가린 병마는 마음 깃을 세우며
기다림의 연줄을 흔들고 있습니다
꽃바구니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쓴 간절한 마음들이
근심어린 얼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하던 날
수술실 밖에서 애태우며 기다리는 가족들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기다립니다.
마른 입술 깨물며, 핏방울 헤아리는 마음 끓어올라도
나약한 나임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
쏟아지는 눈물 속에 어머니를 들여놓고
대신할 수 없는 아픔을 생각하며
긴 복도를 걸어보고 또 걸어봅니다.



깊으나 얇으나 급한 여울이라도
이젠 건너야 할 속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어두운 음계를 밟으며
마취에 잠들어 있을 가엾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수술실에 들여보내던 가족들 얼굴을 떠올리고 있을까
아름 발을 갈아 놓히며 파릇파릇 봄 잎을 그려보고 있을까
어머니 지금 누워 있는 병실엔
이곳을 다녀간 아픔의 흔적들이 배여 있습니다.

정성어린 가족들과 간호사의 보살핌으로 잠깐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순간의 안식처럼
창밖엔 남쪽의 꽃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어머니, 훗날 건강하게 회복 될 그날 두 손 꼬옥잡고
봄나들이 갈 생각을 하며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작품평 :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시로 전했군요.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던 그 날을 소환했군요. 수술실에 계신 어머니나 밖에서 애태우는 가족이나 마음은 하나겠지요. 하나의 마음이 희망으로 “남쪽의 꽃 소식”이 가득합니다. 어머니 손잡고 봄나들이 꼭 다녀오세요.

“서간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2021년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이인태

작품평

10여개의 꼭지 중 특히
테마 수필, 독후감, 용서의 글이
많이 와 달으셨군요. 위안과
깨달음은 책의 부피와는 상관이
없지요. 오롯이 들어가 있는
진솔한 글이 오늘도 밝게
빛납니다. 사회로의 복귀에도
도움 되는 도서지요.

사회와 격리되어 답안이라는 제한적 삶을 살아가는 수형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깨닫는 점, 뉘우침의 각오 등을 큰 부피의 책이 아닌 적은 양의 글모음 책이 주는 큰 마음에 올림입니다.

10개의 콘텐츠로 엮은 글 중 그래도 테마 수필인 「붕어빵」의 글이 웃음과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중 「엄마의 붕어빵」은 자식에 대한 내리 사랑의 엄마의 모습을 글쓴이는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 내리사랑을 「붕어빵」이라는 매개체로 표현한다는 마음씨가 참 아름답고 진솔한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붕어빵」에 대한 글에서는 붕어빵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삶의 교훈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주장한 점입니다.

첫째, 인내라는 것. 둘째, 사랑이라는 것. 셋째, 교육이라는 점, 넷째 기다림이라는 것 등으로 「붕어빵」을 통한 삶의 지혜를 주장한 것이 동감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나 목표는 누구나 세우며 그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죄의 댓가는 필연입니다.



2021년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담안의 삶이 길든지 짧든지 삶의 여정에서 소통하며 인간관계에서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정한 사회로의 복귀가 아닐까합니다.

또한 제가 인생의 순례길이 어느덧 64년의 시간의 흐름속에서 삶에 대하여 좀더 진지한 신중함을 추구하여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해봅니다.

또한 콘텐츠중 「독후감」 부분에서는 비록 시간을 찾아 지적 힘을 위한 글쓴이들의 모습에서 간접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대 상황속에 「수소차~」에 대한 글은 시대가 변천하는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글쓴이의 생각에 동감을 갖기에 부족합니다. 「치유~」에 대한 글 「니체~」에 대한 글은 인생에 대한 성찰로써 부족함이 없는 지적 해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글」에 대하여 여덟 분의 글 중 조은혜님과 황우빈님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진솔함이나 진정성이 곁들여져 저도 모르는 그 읽는 짧은 시간에 눈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봄호를 기대해보며 좋은 글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맑게함과 함께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글이 생각이 납니다.

아울러 covid-19 확진으로 방에만 꼭 있는 시간이 어느덧 2주가 넘는 시간 흐름속에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수행자 여러분에게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길 기도하며 글을 맺겠습니다.

“감상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